

中國의 朝鮮語 放送에 관한 研究

康 賢 斗, 許 進
(서울대 신문학과 교수) (서울대 신문연구소 조교)

차 례

- I. 序論
- II. 中國의 朝鮮語 放送 現況
 - 1. 延邊人民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 2. 黑龍江省人民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 3. 中國 中央人民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 4. 中國 國際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 5. 延邊 텔레비전 放送局
- III. 結論

I. 序 論

오늘날 우리 민족은 가까이 중국과 일본에서, 멀리는 남미와 아프리카에 이르기까지 세계 어디나 폭넓게 퍼져 살고 있으며, 성실과 근면의 상징으로 자리잡고 있다. 더욱이 이제 세계의 한인교포들은 과거처럼 꺾박받고 설움받는 외로운 소수민족이 아니라, 경제적 부와 사회적 지위를 누리는 당당한 민족집단으로서 발전해가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낯선 땅에서 '삶'을 꾸려나가는 해외동포들에게는 항상 자신의 소속감이나 고유한 문화생활에 대한 목마름이 뒤따르기 마련이다. 세계 각국에 퍼져있는 우리말 방송국들은 전파를 통해 동포들의 이러한 목마름을 달래주고, 우리 민족의 고유한 문화를 전수하며, 고국의 소식과 현지생활에 필요한 여러가지 정보들을 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또한 이들 방송국들은 현지 교포들의 실제 생활과 문화 함양을 위한 여러가지 구체적인 사업들을 벌임으로써, 교포사회의 정신적 지주이자 실질적 후원인의 역할을 겸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현재 이러한 우리말 방송국들은 전세계 우리 민족이 살고 있는 곳이라면 어디든지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번창해 있다. 미국의 워싱턴, 뉴욕, 로스앤젤레스, 앵커리지, 호놀룰루, 애틀랜타, 시애틀, 포틀랜드, 시카고 지역을 비롯해서, 캐나다의 토론토, 밴쿠버, 애드먼튼, 캘거리 지역, 그리고 아르헨티나의 부에노스아이레스 지역과 호주의 시드니, 멜버른 지역 등등. 심지어 독립국가연합과 중국, 일본, 스웨덴, 브라질에서도 소수 민족 방송을 이용한 우리말 방송은 예외없이 활기찬 모습을 띠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의 문화적 정체성 유지와 민족문화의 확산 및 발전과 관련하여 해외 교포 방송이 지닌 이러한 역할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중국의 조선말 방송의 운용현황과 방송내용 그리고 수용실태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먼저 중국의 조선어 방송과 관련하여 특별히 지적될 수 있는 몇가지 중요한 의미들을 살펴보자.

<표 1> 해외교포가 많이 살고 있는 국가별 순위¹⁾
(1991.6.30 현재)

순위	국명	동포수(명)	비율 (%)
1	중국	1,922,097	39.77
2	미국	1,452,149	30.05
3	일본	730,901	15.12
4	소련	437,680	9.06
5	캐나다	64,614	1.34
6	브라질	42,323	0.88
7	호주	32,457	0.75
8	아르헨티나	29,921	0.62
9	독일	23,073	0.48
10	스페인	10,037	0.21
11	파라과이	9,568	0.20
12	프랑스	8,234	0.17
13	인도네시아	5,912	0.12
14	리비아	5,727	0.12
15	영국	4,564	0.09
16	태국	4,068	0.08
17	사우디아라비아	3,802	0.08
18	홍콩	3,800	0.08
19	파나마	3,327	0.07
20	싱가포르	2,807	0.06
21	대만	2,653	0.05
2천명 미만		28,700	0.06
전체 해외교포수		4,832,414	100

현재 중국에는 가장 많은 수의 우리 동포들이 거주하고 있다. <표 1>에 나타나 있는 바와 같이,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수는 1991년 6월 30일 현재 1,922,097명²⁾으로, 전체 해외동포의 39.77%를 차지하여 해외동포가 많이 살고 있는 국가별 순위에서 1위를 차지하고 있다. 따라서 타 지역과 비교해 중국의 우리 동포와 우리말 방송에 대한 관심이 우선시되는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1) 외무부, “91 해외동포 지역별 분포현황”, 1991.

2) 이들 1,922,097명의 해외동포들 중 교민수는 1,920,597명이며, 체류자수는 1,500명이다. 또한 1982년 조사자료에 의하면, 중국의 조선족 인구 중 길림성에 62.5%, 흑룡강성에는 24.5% 그리고 요녕성에는 11.2%가 집중되어 있어, 동북 3성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의 비율이 전체의 98%를 웃돌고 있다.

한편 중국은 일본과 더불어 우리나라와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나라다. 그러한 지정학적인 이유로 말미암아, 일찍부터 한반도와 중국 간에는 교류가 활발하였다. 이미 조선시대부터 우리 동포들이 중국땅에 나가 살기 시작하였는데, 중국 이주민의 수가 본격히 늘어난 시기는 일본이 우리나라를 강탈할 전후 무렵이다. 당시 이주민의 대부분은 자신의 뜻과는 상관없이 일제의 침탈과 박해에 시달리다 못해 조상 대대로 살아온 고향 땅을 등진 채, 불안하고 낯선 동토의 땅으로 떠나야만 했다.

그후 조국이 해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복잡한 정치적 상황으로 말미암아 그들은 조국으로 돌아오는 데 많은 애로를 겪었다. 특히 제 2차 세계대전 이후 냉전의 확산과 한국전쟁의 발발로 인해, 남한과 북한 그 어느 쪽으로부터도 제대로 인정받지 못하고 '제 3의 한민족'으로 내몰리는 아픔과 수난을 당했다. 또한 중국 내에서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수립과 1960년대 「문화대혁명」의 소용돌이 속에서 각 시대별 정치노선과 소수민족에 대한 정책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처신해야 하는 어려운 상황이 전개되었다.

하지만 70년대 중반 중국에서 「문화대혁명」이 실패로 끝남과 동시에, 개혁·개방의 시대가 전개되고 국제적으로 냉전이 수그러들면서, 정치적, 이데올로기적 문제로 인해 오랫동안 지속된 단절이 조금씩 해소되기 시작하였다. 특히 이러한 정세의 변화와 함께 88 올림픽을 계기로 우리나라와 교류가 원활해지고 인적·물적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중국인들이 갖는 우리에게 대한 관심이나 인식도 예전에 비해 크게 달라졌다. 보다 실제적이고 실용적이면서, 동시에 서로의 장점을 최대한 살리는 호혜적 발전의 관점이 지배적이게 되었다. 마침내 최근에는 중국과 한국 간에 국교가 수립되고, 정부와 민간차원에서 교류가 증대됨에 따라, 여러 다양한 각도에서 중국과 중국교포에 대한 우리의 관심도 점차 커지기 시작하였다.

더욱이 지난 89년 9월에는 정부가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발표하였는 바, 이를 통해 정부는 자주, 평화, 민주의 3대 원칙을 바탕으로 북한지역 뿐만 아니라, 해외에 거주하는 모든 동포들을 포괄하는 새로운 한민족공동체의 출범을 예고하였다. 이러한 공동체 형성을 위해 우리의 고유한 민족공동체의식을 바탕으로 한 사회문화적 공통요소들을 재확인하고 이를 가일층 강화해 나가는 방안이 모색되었으며,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한민족체전」과 같은 행사를 꾸리기도 하였다.

하지만 지난 40여년간 중국과의 관계가 심각하리만치 단절되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의 중국에 대한 이해의 폭은 매우 협소할 뿐만 아니라, 그나마 갖고 있는 지식마저도 왜곡의 소지가 많다. 심지어 그곳에 살고 있는 우리 동포들의 거주실태에 관한 조사자료만도 턱없이 모자라는 실정이다. 이런 맥락에서 본 연구는 우리 민족의 문화적 정체성 확립과 민족문화의 확산에 있어서 방송이 갖는 역할의 중요성에 인식의 바탕을 두고, 일차적으로 현재 중국에서 행해지고 있는 우리말 방송의 현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이 연구는 연구자가 직접 중국의 각 조선말 방송국을 방문하여 그곳의 방송책임자 및 실무진들과 행한 수차례에 걸쳐 면담한 내용과 그들이 나중에 보내준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기존의 연구성과들을 보완한 것임을 밝힌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 많은 도움을 준 중국 연변인민방송국의 윤광수 국장과 흑룡강성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의 권오운 주임 그리고 중국 북경방송국의 김춘자씨 등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II. 中國의 朝鮮語 放送 現況

현재 중국에는 대표적인 4개의 라디오 방송국과 17개의 중소 라디오 방송국 그리고 1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우리말 방송³⁾을 하고 있다. 라디오 방송으로는 연변인민방송국(연길)의 조선어 방송, 흑룡강성인민방송국(하얼빈)의 조선어 방송, 중국 중앙인민방송국(북경)의 조선어 방송, 중국 국제방송국(북경)의 조선어 방송 등이 대표적이며, 연변 자치주 내의 도문시, 훈춘시, 화룡현, 용정시, 안도현, 돈화시, 왕청현의 중소방송국 그리고 흑룡강성 내의 오상현, 아성시, 헤림현, 영안현, 미산시, 목룡현, 벌리현, 탄원현, 연수현, 삼지시 등에 중소방송국들이 있고, 텔레비전 방송으로는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연길)이 유일하다.

지금부터 대표적인 방송국인 연변인민방송국, 흑룡강성인민방송국, 중국 중앙인민방송국, 북경 국제방송국, 그리고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조선말 방송에 대해 차례로 살펴보기로 하겠다.

1. 延邊人民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올해로 개국 45주년을 맞이한 연변인민방송국은 중파 1206 KHz, 파장 248.8 미터, 출력 1,000 Kw로 하루 10시간 50분 방송하며, 연변주 일대가 주요 가청지역이다.

가. 연혁

연변인민방송국은 1948년 9월 1일 창립되었다. 그러나 이 방송국이 전파를 발사해 온 것은 이보다 훨씬 오래 전인 일제시대부터였다. 일본 지배하의 延吉은 僞間島省의 소재지였다. 1931년 4월 1일, 일본인들은 그들의 침략을 정당화하고 침략정책에 활용하기 위해 이 곳에 방송국을 세우고 이를 “延吉放送局”이라 칭하였다. 이 연길방송국은 처음에는 10w의 송신기로 시험전파를 내보냈으며, 같은 해 11월에 20w 송신기에 주파수 785 Hz, MTKY라는 代號로 정식방송을 시작하였다. 1941년 그들은 두 개의 송신기를 사용하였는데, 50w 송신기로는 일본어 방송을, 200w 송신기로는 중국어와 한국어 방송을 하였다. 그후 1943년 5월 1일에 연길방송국은 “間島放送局”으로 개칭되었다.⁴⁾

1945년 해방으로 일본인들이 철수하자, 그 해 11월 연길 주재 소련 홍군 사령부가 접수 관리하게 되었다. 이렇게 되면서부터 「모스크바방송」과 「블라디보스토크방송」의 러시아말 방송을 專門 중계했다. 1946년 4월 소련 홍군이 철퇴하고, 연변 행정독찰전원공사

3) 중국의 동포들은 우리말 방송을 흔히 ‘조선말 방송’이라 부르며, 이에 반해 소련의 동포들은 보다 자주적 색채가 강한 ‘고려말 방송’이란 용어를 사용한다.

4) 김원태·최상철, “중국 조선족 동포의 우리말 신문방송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28호, 1992년 가을, 한국언론학회, p.145.

에서 사람을 파견해 이 방송을 접수관리하게 하고, 「延安新華放送」 프로그램을 중계하였다.

그해 얼마 있어 길림성당위사령부가 연길로 동천하면서, 길림성위원회가 주도하여 길림방송국에서 철수한 사람들과 연길방송국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규합, “延吉新華放送局”을 설립하였다. 그리하여 6월 14일에는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50w 송신기로 시험전파를 보냈으며, 7월 1일부터는 연길신화방송국 XNYR, 주파수 785 Hz로 정식 방송을 시작했다. 1947년 여름에는 1Kw 송신기를 갖추고 주파수 1,353 Hz로 변조하였으며, 같은 해 10월에는 200w의 중파 송신기를 단파송신기로 바꾸어 중앙파 동부로 송신하였다. 이 때는 漢語 표준말방송을 위주로 하고, 부분적으로만 조선말 방송프로그램을 꾸렸다. 그리하여 이 방송국은 전국해방구 내에서 처음으로 소수민족말로 방송한 역사를 기록하고 있다.

당시의 방송내용을 개략적으로 살펴보면, 「陝北新華放送」의 뉴스, 시사논평 등 프로그램 중계한 외에도 군사보도, 지방소식, 기록신문, 시사논평, 소설강독, 음악, 방송드라마 등 프로그램을 자체로 꾸렸다. 그리고 방송출력이 점차 커짐에 따라 <對蔣介石管轄區放送>, <對蔣介石將兵放送>과 같은 특집프로그램도 꾸렸다. 또한 당시 중국해방전쟁시기에 있어서는 각 전쟁터에서 오는 승리소식을 제때에 전함으로써 대내적으로는 인민대중을 조직동원하고 고무하여 전력을 다해 전쟁을 지원하며, 대외적으로는 적들의 죄상을 공개하고 적의 사기를 꺾는 임무를 수행하였다고 한다.

1948년 3월 9일 長春과 가까운 거리에 있는 吉林이 해방되자 延吉新華放送局은 직원을 吉林放送局에 파견하여 방송업무를 도왔으며, 얼마 안 있어 장춘이 해방되어 吉林省黨委司令部가 장춘으로 옮겨가면서 延吉新華放送局을 延邊地委에 移交하여 지방의 領導를 받게 하였다.

따라서 延邊人民放送局의 창립시기는 이러한 소속관계의 변경시기를 기준으로 삼는바, 그 날이 바로 1948년 9월 1일이다. 당시 이 방송국의 명칭은 “延吉放送局”이었는데, 그후 1949년 5월에 “延吉人民放送局”으로 바뀌었고, 1951년 4월부터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延邊人民放送局”으로 확정되었다.⁵⁾

1949년 10월 1일 「중화인민공화국」이 수립된 이후, 사회주의 사회의 거대한 변혁을 맞게된 연변인민방송은 중국 공산당과 정부의 지도와 민족정책의 기치 아래 사회주의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건설을 위하여 인민대중을 교육하고 고무하는 강력하고 현대화된 선전도구로 발전하게 되었다.

연변방송국 초창기에는 ‘地方性’과 ‘民族性’을 방송운동방침으로 정했고, 주된 대상을 조선족으로 하고 여러 계층을 동시에 들본다는 원칙을 세웠다.⁶⁾ 그 후 1950년대 6.25 전쟁기에는 일부 새로운 프로그램을 설정하고, <抗美援朝, 保家衛國> 특집프로그램도 꾸렸으며 자체로 방송드라마와 소형문예프로그램도 꾸렸다.

문화대혁명기에는 방송내용이 주로 「文化革命」에 대한 선전이었기 때문에 당시 방송내용상에는 별다른 진전이 없었으나, 방송기술은 이 기간 중에 많이 발전하였다. 특히 라디오 방송의 총송신력이 95%나 증가하였다. 이는 사인방의 정치지도 세력이 자신의 이념과 추진정책을 중국 국민에게 널리 전달하기 위해 취한 조취였다. 또한 이 기간 중

5) 윤광수, “연변인민방송국의 연혁과 방송정황”, 『북방동포 방송현황과 교류협력방안』, 북방동포대상 방송2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KBS, 1992년 10월 7일, p.21.

6) 위의 글, p.21.

국제방송을 통해 방송되는 외국어가 44개, 유선방송국이 2,503개나 증가했으며 방송스피커도 1억개를 초과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방송기술의 발전은 단지 표면적인 양적 확장일 뿐이지, 방송의 진정한 사회적 기능이라는 방송의 질의 문제는 거의 고려되지 않았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볼 때, 문화대혁명 기간의 중국 방송은 당시 국가경제와 정치상황의 영향을 받아 아주 부진한 모습을 보였다.⁷⁾

1978년 당중앙 제 11기 제 3차 전원회의 이후, 연변방송은 실사구시의 사상노선 하에 10년동란 시기의 혼란한 것을 바로잡고 방송의 강대한 위력을 과시하면서 새로운 시기의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을 선전하여 도시와 향촌의 경제체제개혁을 촉진하고, 개혁 개방을 기본점으로 연변경제를 진흥시키며,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을 촉진하는 일에 주력하게 되었다.

오늘날 연변인민방송국의 방송 정황은 다음과 같다. 조선말 방송은 주파수 1206KHz에 하루 방송시간은 모두 10시간 50분이며, 아침방송, 낮방송, 저녁방송으로 나뉘어져 있다. 아침방송은 새벽 5시부터 8시까지, 낮방송은 11시부터 오후 1시 40분까지, 그리고 저녁방송은 오후 5시부터 밤 9시 30분까지다. 방송시간 사이에는 송신기 사정으로 쉬고 있는데, 비슷한 시간에 별도의 사이클로 중국어방송도 내보내고 있다.

나. 특징

연변인민방송국은 조선말 방송을 주로 하되, 조선말 방송과 漢語 방송을 동시에 수행하며, 편집, 녹음, 증음, 송신, 행정에 이르기까지 완전한 독립적 체계를 갖춘 방송국이다. 여기서 내보내는 방송의 전반적인 내용적 특성은 북한방송처럼 사회주의 이념교육과 특정한 이상화를 위주로 한 딱딱한 방송이 아니고, 오락적인 요소도 많이 갖추고 있는 매우 부드러운 방송이라 할 수 있다.⁸⁾

다. 인원과 조직

현재 이 방송국에는 211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그중 漢族이 63명이고 나머지는 조선족이다. 또한 조선말 방송에 종사하는 편집기자는 93명, 漢語 방송에 종사하는 편집기자는 42명이다. 남녀의 비례는 약 3:1 정도이고, 학력은 절대 대부분이 대학을 졸업했으며, 일부는 중등전문학교를 졸업했거나, 그에 상응하는 교육수준을 지니고 있다. 또한 국가급 고급직함을 수여받은 자가 7명이고, 중급직함을 수여받은 자가 89명이다.

이 방송국의 지도기구로는 총편집실이 있는데, 총편집의 지도 밑에 부총편집들이 방송국을 관할한다. 원고심사제도는 총편집책임제를 실시하고 2심을 거친다. 전체적인 기구설치 상황을 살펴보면, 총편집실, 총편집관공실, 통신연락부, 대외연락부, 보도부, 특집부, 사회교육부, 소년아동부, 청년부, 음악부, 문학부, 경제정보(광고)부, 방송부(아나운서실), 생활안내편집부, 녹음부, 증음실, 발사국, 성우실, 악단, 도서실, 행정과 등 총 21개 부, 실, 과, 단이 있다.

그 중에서 방송편집과 관련이 깊은 주요 부서들의 기능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7) 주봉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언론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4년 2월 출간예정, p.155.

8) 김원태·최상철, 앞의 글, p.145.

- * 「총편집실」 : 편집업무와 행정적 지도를 겸한다. 전반적인 방송행정을 지도 감독하며 방송의 선전내용을 검열한다.
- * 「보도부」 : 자치주 내에서 발생하는 정치, 경제, 문화, 위생, 교육 등 제방면의 뉴스를 취급한다. 진실성, 정확성, 시간성을 강조하며 당과 정부와의 일치성을 원칙으로 한다.
- * 「특집부」 : 보도부의 보충부분으로서 주로 工作經驗, 인물통신, 이야기, 사업담 등의 형식으로 사회주의 물질문명과 정신문명 건설에서의 뛰어난 점들을 선전한다.
- * 「사회교육부」 : 교육성, 지식성, 취미성, 오락성을 내세우고 여러 잡지의 정확을 집대성해 청위자들에게 풍부한 지식의 영양을 공급하며 정신적 향수를 주는 프로를 제작한다.
- * 「소년아동부」 : 소년아동들의 건전한 성장을 위해 봉사하는 대상성 프로를 제작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뉴스, 특집, 음악, 문학을 포괄하는 종합성 프로를 꾸민다.
- * 「청년부」 : 청년들의 건강발전을 위해 봉사하는 대상성 프로를 꾸민다. 주로 교육성, 지식성 프로를 제작하며, 또한 연애, 혼인, 가정이란 주제로 청년들의 실생활을 취급한다.
- * 「음악부」 : 지방가요, 민족음악, 대중가요, 외국음악을 위주로 편성하며, 방송에 소요되는 음악자료 전체를 제작한다.
- * 「문학부」 : 주로 방송드라마를 제작하고, 소설강독, 시낭송, 작가소개 등 문예프로를 제작한다.
- * 「방송부」(아나운서실) : 각 부에서 편집창작한 원고를 녹음 방송한다.
단, 생방송은 하지 않는다.
- * 「녹음부」 : 방송국 편집부문에서 편집 창작한 프로그램 전부를 녹음한다.
- * 「증음실」 : 방송통제부문이자 신호수송부문으로서 녹음 제작완료된 자료를 전파수단으로 발사부문에 수송한다.
- * 「발사국」 : 대외로 전파를 송신하는 부문이다.

* 「통련부」: 통신원과 특파기자를 관리하고, 일체의 대외관계를 처리한다.

* 「총편집관공실」: 총편집의 사무를 돕는 행정기구이다.

방송실무와 관계되는 모든 행정적 일들을 처리한다.

그외의 과, 부, 실은 모두 방송업무를 위한 후근부의 역할을 수행한다.

라. 청취범위

연변방송국 창립초기의 전파범위를 보면 형편없이 작았다. 또한 제 2차 세계대전 후 외국 방송이 부단히 출력을 높여 전파의 방해가 심했다. 따라서 연변방송국도 외국과 경쟁적으로 출력을 높이고 외부의 영향력을 줄이고자 하였으나, 변경에 위치해 있어 여전히 외국 방송에 눌려있는 형편이었다.

1962년 신호전파범위를 측정한 자료에 의하면, 그 전파범위가 방송국주위로 반경 30 Km밖에 안되었다.⁹⁾ 결국 연변하늘은 외국방송의 전파천지였다. 아침 저녁으로 일본말 방송과 한국 방송의 심한 영향을 받았다. 그래서 연변방송국은 외국방송의 교란이 보다 적은 정오시간을 잘 이용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그 후 1962년 주은래 총리가 연변을 시찰할 때, “조선말 방송을 잘 꾸려야 한다.”는 지시를 받고, 이 지시를 받들어 방송선전의 질을 높이는 데 힘을 썼다. 먼저 출력 면에서 최초의 50w에서 현재 출력 1,000Kw로 확대되었다. 또한 방송, 녹음, 통제, 송신시설을 점차 개선하여, 1973년에는 새로운 면모를 보이게 되었다. 특히 그해 낮은 출력의 발사기를 漢語 방송에 내주어 조선말 방송을 독립적으로 방송하게 하고, 새로 들여온 150kw짜리 송신기로 하루 10시간 이상으로 늘어난 방송시간을 모두 조선말 방송으로 메꾸게 되었다. 이때부터 漢語 방송과 조선말 방송이 철저히 분리되었다 할 수 있다.

오늘날 연변 방송국은 연변주 일대는 물론 동북3성, 내몽골, 한반도, 소련연해지구, 일본까지 전파가 미칠 수 있는 방송국으로 되었다.

마. 방송편성

1949년 상반기 연변방송편성표에 의하면 하루 방송시간은 도합 7시간 20분이었는데, 순수 조선말 방송시간은 3시간 45분이었고, 그의 방송시간에는 「北平新華放送」과 「東北放送」을 중계했다. 그 당시의 프로그램으로는 국내의 소식(번역), 지방소식, 논평, 음악, 희곡 등 몇 개 프로밖에 없었다.

1949년 하반기부터는 연변의 조선족이 총인구의 74.7%를 차지하는 정황에 비추어 연변방송의 주요 청취대상이 조선족으로 결정되었다. 따라서 중앙인민방송국의 중계방송프로와 신문의 주요 내용만을 중계하는 외에 전부 조선말로 방송하였다.

1951년 방송시간표의 기재에 의하면 당시 하루 방송시간은 6시간이고 아침, 정오, 저녁 3차례로 나누어 방송하였다. 그 당시 프로그램의 정황을 살펴보면 비교적 다양했는데, 「국내외소식」, 「지방소식」, 「논평」 프로를 지속적으로 꾸렸고, 그밖에 「과학상식」,

9) 윤광수, 앞의 글, p.22.

「소년아동」, 「부녀」, 「문예」, 「음악」, 「라디오제조」 프로그램을 꾸렸었다.

1953년에는 특정대상을 상대로 하는 프로그램이 한계성이 있다 하여 「부녀」, 「소년아동」 프로그램을 없애고, 체육, 위생, 자녀교육을 내용으로 한 종합프로그램을 꾸렸다. 그때를 전후하여 「학습」, 「농촌」, 「每週一歌」, 「요청음악(희망음악)」 등의 프로그램을 꾸리기도 하였다.

1959년에는 「全州 각 방송소 중계방송」 프로그램을 꾸려 각 顯市 방송소에서 반드시 중계하도록 하였다. 또한 1961년에는 「위대한 조국」, 「세계지식」, 「혁명이야기」, 「역사이야기」 프로그램과 「연변일요적요」 프로그램도 꾸렸다.

1966년 「문화대혁명」이 시작된 후, 지식성 프로그램이 취소되고 문예프로그램도 대폭 감소되었으며, 대신 모택동주석 학습프로그램시간이 늘어났다. 얼마 지나지 않아서 전 사회적으로 파벌투쟁이 벌어져 지방보도 취재활동을 할 수 없게 되자, 지방프로그램을 전면 중단하고 「일기예보」 프로그램 외에는 「중앙인민방송국」의 프로그램을 중계하거나, 번역프로그램만 꾸렸다.

1978년 당중앙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지방프로그램을 완전히 회복하고 보도와 문예성 프로그램을 늘리고, 교육성 프로그램과 복무성 프로그램의 범위를 확대했으며, 지식성 프로그램도 회복하였다. 1980년초의 프로그램 개편자료에 의하면 지식성과 교육성이 결합된 「라디오잡지」 프로그램을 새로 증설하고, 농촌프로그램과 종업원프로그램을 합병해 「새장정」 프로그램으로 꾸렸으며, 방송 광고프로그램도 취급했다.

1984년에 와서 「소년아동」 프로그램을 토대로 「청년생활」 프로그램을 증설했으며, 「새장정」과 「농촌에 대한 방송」 프로그램을 없애고, 「오늘의 연변」을 꾸렸다. 그리하여 오늘날 연변인민방송국에서는 종합성 프로그램인 「뉴스」, 「일기예보」, 「소설낭독」 등을 포함하여 특정대상 프로그램인 「소년아동」, 「청년생활」, 「농업학교 방송강좌」 등 비교적 다양한 내용의 프로그램들이 방송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 방송에서 흔히 찾아 볼 수 있는 라디오 드라마나 DJ 프로그램, 퀴즈 프로그램, 전화회망곡 같은 프로그램들은 방송되지 않는다.

현재 연변인민방송국에서 조선말로 방송되는 프로그램들에는 「전주(全州)중계방송」, 「지방소식」, 「간명소식」, 「오늘의 연변」, 「소년아동」, 「청년생활」, 「라디오잡지」, 「위생과 건강」, 「이론학습」, 「문학프로그램」, 「소설연속낭독」, 「15분 일요일문예」, 「음악」, 「요청음악」, 「매주일가(每週一歌)」, 「방송드라마」, 「대중가요무대」, 「방송광고」, 「일기예보」, 「중앙농업기술강좌」 그리고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방송중계」 등의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하에서는 이들 프로그램을 크게 보도성 프로그램, 특집 프로그램, 교육성 프로그램, 문예성 프로그램, 복무성 프로그램 등 유형별로 묶어서 살펴보고자 한다.¹⁰⁾

A. < 보도성 프로그램 >

보도성 프로그램은 주로 뉴스보도나 시사해설의 형태를 띠며, 그 주된 내용은 개혁개방노선의 견지와 경제건설에 관한 것들이다. 물론 취미와 오락성이 가미되기도 한다. 사회주의식 보도의 전반적인 특성으로 지적되는 바와 같이, 전체 보도의 80-90%는 긍정적인 보도이며, 비판적 보도의 비중은 그다지 높지 않다. 또한 모든 뉴스 프로그램은 정해진 시간에만 방송되며, 생방송이 아닌 녹음방송의 형식을 취한다.

이러한 보도성 프로그램으로는 먼저 낮 12시에 15분간 방송되는 「전주(全州) 각 방송

10) 윤광수, 앞의 글, pp. 25-32 참조.

국 중계방송」 프로그램이 있으며, 저녁 8시부터 15분간 방송되는 「지방소식」 프로그램도 여기에 해당된다. 이 두 프로그램은 기본상 재방송되는 프로그램으로서 각 업종들에서의 물질문명건설과 정신문명건설에서 쌓은 성과와 경험, 선진사적을 선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 보도들은 사회적 효과성이 비교적 좋으며, 특히 경제체제개혁과 정치체제개혁 활동 중에 좋은 경험들을 많이 소개함으로써 실제 지도적 의의가 크다.

또한 아침 6시, 저녁 7시에 보도되는 10분간의 「간명소식(簡明消息)」이 설치되어 있는데, 이 프로그램은 주로 짧고, 빠르고, 새롭고, 흥미를 끄는 사회소식을 위주로 보도한다. 이것은 보도가치가 높은 신문사설들을 간추려서 빨리 전파함으로써 사회적 효과성이 가장 뛰어나다.

이밖에 보도성을 띤 프로그램으로는 아침 5시 30분과 저녁 6시에 25분간 중계하는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중계」가 있다.

B. < 특집 프로그램 >

여기엔 「시대의 목소리 오늘의 화제」라는 하루 2차례 재방송하는 10분짜리 프로그램이 해당된다. 주로 전형적인 인물을 선전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면서 보도프로그램의 보충부분으로 취급되고 있다. 개혁·개방의 물결 속에서 대담하게 새 것을 창조하고 어려움을 극복해가는 개척자의 형상을 실화로 엮어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한다. 이밖에 공업, 농업, 상업, 재정, 무역, 체육, 위생, 문화, 교육 제분야에서 창조되고 있는 전형적인 경험이나 선진적 업적들을 다양한 체제로 취재 편집하여 방송한다.

민족정책이나 민족단결문제 또한 이 프로그램의 주요 내용 중의 하나이다. 다양한 민족으로 구성된 중국에서 민족정책은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연변인민방송국은 줄곧 당의 민족정책을 선전하며 민족단결을 강화하는 것을 중요한 보도내용으로 삼아왔다.

이 프로그램에서는 매년 9월 「民族團結月」에는 물론, 평상시 보도에서도 민족단결史蹟을 널리 선전한다.

C. < 교육성 프로그램 >

교육성 프로그램은 소년아동을 위한 방송, 청년들을 위한 방송 그리고 종합성 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연변인민방송국은 1950년도에 일찌기 조선말 소년아동방송프로를 비정기적으로 방송했다. 그후 얼마간 중지되었다가, 1956년 9월 1일에 「소년아동프로」를 정식으로 설치하여 지금까지 매일 20분간 2차례씩 재방송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소학교 1학년부터 초급중학교 1학년까지의 조선족 어린이들을 주요대상으로 한다. 소년아동 프로그램은 교육성, 보도성, 지식성, 문예성을 결합시킨 종합성 프로그램으로서 요일에 따라 다음과 같이 배치하였다. 월요일 「혁명전통교양프로」, 화요일과 토요일 「아동문예」, 수요일 「소년대생활」, 목요일 「신문개황」, 금요일 「과학지식」, 일요일 「요청프로」가 방송된다. 또한 매 프로그램의 끝머리에는 3, 4분 동안의 노래를 실어 보내며, 매달 「노래 따라 배우기 시간」이 두번 있고, 일요일 「요청프로」에서도 아동음악이 많이 방송된다.

청년들을 대상으로한 방송을 「청년생활」 프로라 한다. 이 프로는 “빛나는 청춘, 황금의 시절”이란 제목으로 방송되고 있다. 「청년생활」 프로는 1984년 4월 2일에 시작되었는

태 중국공산당 제12차전국대표대회에서 제기된 “청년들에 대하여 사상, 도덕, 규율, 교양을 진행해야 한다”는 전략적 방침을 좇아 조선말방송에서 새로 꾸린 프로이다. 시간은 15분간 하루 3차례 재방송한다. 여기에는 “새사람 새로운 일”, “청년우편함”, “우정과 사랑”, 혼인을 소재로 하는 “오작교” 등의 소항목들이 있으며, 그 대상은 중학교 2학년 이상, 고급학교와 대학전문학교 학생과 청년종업원 그리고 사회청년 등이다.

종합성 교육프로는 전국 신문잡지의 내용을 추려 집대성한 「라디오잡지」 프로를 위주로 하고, 「위생과 건강」 프로, 「이론학습」 프로를 한데 묶어서 총 25분간 하루 2차례 재방송되는 프로를 말한다. 이는 지식성, 교육성, 취미성, 이론성을 종합한 프로이다.

이중 「라디오잡지」라는 프로는 전국 신문잡지의 내용을 간추려 모은 지식성, 취미성이 뛰어난 작품이다. 또한 내용이 풍부하고 글이 짧으며 형식이 다양하여 시야를 넓혀주고 지식을 넓게 할 뿐만 아니라 교육과 지도를 받을 수 있게 하여 대학교수로부터 가정주부에 이르기까지 모두 즐겨 감상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이론학습」 프로는 ‘사회발전사’, ‘중국공산당사’, ‘이론과 실천문제 강좌’, ‘사회주의 법제 강좌’, ‘민족정책강좌’, ‘당의 기본지식강좌’, ‘공산당원 준칙강좌’, ‘이론지식’, ‘경제체제개혁강좌’, ‘개혁개방정책문답’, ‘법률상식’, ‘법무지식’, ‘정책문답’, ‘국내외 시사논평’ 등의 내용을 취급하며, 공장이나 농촌의 선전일군과 이론사업 전문일군들을 대상으로 한다.

D. < 문예성 프로그램 >

문예성 프로그램은 다시 음악방송과 문학방송으로 나뉜다.

당중앙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 이후 “문예는 사회주의를 위하여 복무하고 인민을 위하여 복무하여야 한다”는 방침아래 지방특색이 짙고, 민족특색이 짙은 음악프로들이 꾸려지고 있다. 연변인민방송국에서는 매일 16차례 총 3시간 35분의 음악방송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루 방송시간의 30%에 해당된다. 그리고 모든 프로그램에서 음악이 차지하는 비중은 크다.

음악방송에는 「매주일가(每週日歌: 매주 한가지 노래를 반복하여 소개하는 시간)», 「취청자요청음악», 「음악감상», 「노래공부», 「음악생활», 「음악지식», 「음악박람회», 「명곡감상과 해설», 「대중음악무대」 등의 고정프로가 있다. 이중에서 특히 「대중음악무대」 프로는 1988에 조선족 군중들의 애호에 따라 새로 꾸며진 프로로서 한국 KBS의 「가요무대」와 「전국노래자랑」을 모방해서 만든 것으로 보인다. 그 특성은 대중이 방송무대에 올라 자유로 선택한 노래를 부르면 대중이 듣는 포맷으로, 노래의 전문성을 탈피하고 대중성을 확장하면서 우리 동포들의 인기를 급속히 획득하였다.

연변인민방송국은 「요청음악(희망음악)」과 「매주일가」 시간을 통해 대중가요 또한 많이 방송하며, 특히 한국과 국교수립 이후에는 흘러간 노래들을 중심으로 한국가요들도 공식적으로 방송전파를 타고 있다고 한다.¹¹⁾ 또한 음악부에서는 설과 같은 명절이나 중대한 행사가 있을 때에는 「특집 야외음악」 프로그램을 꾸린다. 이 방송국은 자체의 라디오 텔레비전 예술단을 갖고 있는데, 해마다 3백여곡의 지방음악작품을 녹음제작하여 이

11) 김원태·최상철, 앞의 글, p.145.

중 80%를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방송과 흑룡강조선말방송국에 제공한다.

문학방송은 「방송극」, 「일요일 15분 문예」, 「연속소설낭독」 등 3개의 고정 프로그램을 갖고 있다. 그중 「방송극」은 청취자들이 가장 즐겨듣는 문학프로이다. 「방송극」의 소재는 첫째, 州 내의 지방작품을 편집 가공하여 만드는 것으로 이러한 형태가 전체의 46%를 차지한다. 둘째, 전국 각 문예간행물에 실린 작품을 번역 각색하여 만드는 것으로 그 수량은 전체의 약 절반가량을 차지한다. 셋째, 자매방송국에서 방송된 작품을 직접 번역하여 만드는 것으로 그 양은 얼마 되지 않는다.

이 방송국에서는 「방송극」을 해마다 약 50편 정도 제작하는데, 흑룡강조선말방송국에서도 이것들을 가져다 방송한다. 문학프로 방송시간은 하루 50분간 2차례 재방송한다.

E. < 복무성 프로그램 >

연변인민방송국에서는 사회경제생활과 대중을 위하여 「광고」와 「일기예보」 프로그램을 방송하고 있으며, 『생활안내』라는 신문도 발간한다. 『생활안내』는 「라디오잡지」 프로그램에서 이미 방송된 원고를 종합하여 신문에 실는다. 그 발행부수는 2만여부로서 州 내외의 가정주부들에게 많은 인기가 있다.

바. 방송언어

이 방송국은 창립 초기에 두가지 언어를 사용해 방송하였다. 조선어가 차지하는 비율은 이전 「延吉新華放送局」 때 사용했던 비율인 18.2%에서 51.2%로 증가하였다.¹²⁾ 이 비율은 점차 늘어나 앞에서 언급한 바대로, 1949년 하반기부터 중앙방송국의 중요한 프로그램을 제외하고는 완전히 우리말을 사용하여 방송함으로써 순조선말 방송을 원칙으로 삼게 되었다. 그러다가 다시 1956년 하반기부터 한 말사대에 漢語 방송을 삼입하였다. 그후 1969년 4월 1일부터는 두개의 주파수를 사용하여 조선말과 중국어 두가지 언어를 사용하여 방송하였다.

1973년 이래 중국어 방송과 조선말 방송의 완전한 분리가 이뤄지긴 하였으나, 현재까지 이 방송국은 조선말을 위주로 하고, 동시에 중국어를 사용하여 방송한다는 방침(현재 약 50%가량을 한국어로 방송하고 있다¹³⁾)을 견지하면서, 두가지 언어로 41개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고 있으며, 139개의 고정칼럼을 갖고 있다.

사. 광고방송

이 방송국의 특이한 점은 사회주의 국영방송이면서도 광고방송을 한다는 점이다. 광고방송은 아침방송에 5분씩 두번, 낮방송에 5분씩 세번 그리고 저녁방송에 5분씩 세번 방송한다. 이른바 블록광고 방식이다. 광고내용은 전자제품, 화장품, 한약, 미장원 등의 상업광고가 대부분이나, 공익광고도 있다.¹⁴⁾

12) 김원태, “연변인민방송의 개요”, 『방송문화』 11, 한국방송협회, 1989. pp. 60-62.

13) 방송위원회, “서울에 온 연변인민방송국 보도국의 20대 청년기자 문영범”, 『방송'90』 6월호, p.97. 한편 연변의 조선어사용조례에 의하면 연변의 제 1언어는 조선어이며, 여기에 한어를 병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삼고 있다. 이는 언어와 문자 공히 마찬가지로이며, 이를 어길 경우엔 처벌도 가능하다.

14) 김원태·최상철, 앞의 글, p.144.

아. 인원양성

현재 연변에는 5개 대학에서 조선어 강의를 필수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민족간부를 육성하고 민족적 풍습 및 습관을 전래 발전시킬 목적에서 비롯된 바, 연변방송국 조선말 방송은 이 대학들에서 배출한 인재들을 중심으로 인원을 채용하고 있다. 또한 이 방송국에서는 언어연구소를 설립하고 유능한 국원을 조장으로 발령하여 방송에 대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연구를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자. 교류

연변인민방송국은 북한방송사와 약간의 교류가 있으나, 북한에서 제작된 방송프로그램들은 연변 조선족 동포들의 정서와는 달라서 호응도가 낮기 때문에 방송에 잘 신지 않고 있다. 따라서 대부분의 교류는 흑룡강 조선말 방송국이나 중앙인민방송국 또는 국제방송국과 이루어 진다. 또한 현재 연변인민방송국의 아나운서들은 KBS에서 순번제로 표준말 익히기 훈련을 받고 있다.

차. 전망

중국 연변 조선족 자치구 주민들은 아직도 텔레비전 보다는 라디오를 듣는 시간이 많다고 한다. 따라서 연변 자치구에서도 라디오를 통한 주민들의 교육, 계몽정책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¹⁵⁾ 이와 아울러 연변인민방송국은 장차 성능 좋은 송신기를 마련해 아침, 낮, 저녁 방송 사이의 정파시간을 없애고 더욱 많은 시간을 연변주 한민족에게 방송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¹⁶⁾

2. 黑龍江省 人民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흑룡강성 인민방송국은 조선말 방송을 하는 중국의 유일한 省級(한국의 도급) 방송국으로서, 주로 흑룡강성내의 45만 동포들을 대상으로 제 1채널(621KHz)과 제 2채널(873KHz)을 통해 중파 200Kw, 단파 50Kw로 하루 6시간 방송하고 있다.

가. 연혁

흑룡강성¹⁷⁾의 목단강, 목릉하, 당왕하, 왜궁하, 라립하를 비롯한 강유역에 위치한 53개 현과 시에 45만 2천 3백 98명의 조선족 동포들이 자연부락을 이루어 살고 있다. 이곳의 조선족은 길림성의 조선족들처럼 한데 모여 살지 않고, 여러 현, 여러 향에 널리 퍼져서 살고 있다. 현재 흑룡강성에는 조선족의 자치현이나 자치주가 없이 단지 23개의 조

15) 강현두·주봉의, “중국방송사”, 한국방송학회 편, 『세계방송의 역사』, 나남, 1992. p. 296.

16) 김원태, “연변인민방송국”, 『방송문화』 11, 1989, pp.60-61.

17) 흑룡강성은 47만 평방Km의 면적에 풍부한 자원을 가지고 있으며, 거기에 대략 3천 3백만 인구가 살고 있다.

선민족향이 있을 뿐이다.

하지만 이곳의 조선족들은, 다른 곳의 조선족들과 마찬가지로, 고유한 생산양식, 생활양식, 풍속습관, 명절, 음악무용, 예의범절, 종교신앙 등을 지니고 있다. 특히 이들은 흑룡강성에서 벼농사의 시원을 열었을 뿐만 아니라, 문화교육면에서 비교적 발달되어 문화생활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았다.

따라서 성정협과 성당대표회의에 참석한 조선족 대표들과 위원들은 흑룡강인민방송국에 조선말 방송을 증설해줄 것을 수차례에 걸쳐 요구하였다. 이미 1950년대 중반에 실질적인 사업을 추진한 바 있으나, 정치운동으로 인해 사업이 중단되기도 하였다. 그후 1962년에 방송국편집위원회에서 조선말 방송증설문제를 다시 토의하였고, 동년 10월부터 조선족 5인이 방송국에 입사하여 실제적인 준비를 꾸리기 시작하였다.

1963년 2월 16일 중국흑룡강성위선전부로부터 사업허가를 받아, 마침내 1963년 2월 20일(수요일)에 흑룡강성 최초의 조선말 방송이 실현되게 되었다. 이날 오후 4시 30분 하얼빈시 교외 성고자진에 위치한 904 송신소의 높이 125미터 되는 송신안테나¹⁸⁾로부터 무선전파를 타고 첫 방송이 울려 퍼졌다.¹⁹⁾

이렇듯 흑룡강인민방송국에서 증설한 조선말 방송은 시설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고통을 감수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3년간의 초창기를 조선족의 열띤 호응 속에서 순조롭게 발전하였다. 즉 문예프로의 경우, 초기에 90세트밖에 없던 데서 464세트로 늘어났으며, 조선족이 비교적 집중된 12개 현에 300여명의 통신원을 두게 되었다. 뉴스도 성방송국의 「전성중계방송프로」와 「뉴스」프로의 번역안만 방송하던 데서 조선족 관련 뉴스를 30-40% 정도까지 늘려 방송하게 되었다. 또한 조선족 청취자들이 방송을 보다 잘 들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대규모 조사사업을 거쳐 방송시간을 적극 쟁취하여 조선말 방송이 매일 30분씩 1차례만 방송하던 데서²⁰⁾ 1965년 5월에 이르러서는 매일 30분씩 3차례 방송할 수 있게 하였다.

그후 1966년부터 10년 동안기(1966년 1월-1978년 12월)의 폐해를 겪었는데, 이 기간에 조선말과 글이 박해를 받아 번역원칙과 조선어규범을 무시하고 한문을 직역하거나 음차하기가 일쑤였다. 문학을 찬양하는 몇 편의 노래와 수많은 어록이 방송의 대부분을 차지하였으며 조선족의 원고는 취급하지 못하게 되었다. 또한 당시 조선말 방송을 꾸려나갔던 직원들 또한 동란의 시달림을 받고 빨빨이 흩어져 단결이 파괴되고 사업열의가 식어졌으며 책임감과 사명감도 미약해졌다. 그때 방송은 극좌노선의 어용나팔수였으며, 동시에 피해자이기도 하였다.

그러나 조선말 방송조의 열띤 노력으로 성방송국에서는 열악한 형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1966년부터 조선말 방송을 매일 50분씩 4차례로 늘려주었고, 1971년 5월부터는 매일 1시간씩 3차례 방송하도록 해 주었다. 1973년 10월에는 「흑룡강일보」(조선문보)와 협력하여 하얼빈에서 「제 1차 전성조선족통신사업회의」를 개최, 통신원의 조직체계를 정돈하고 3급기층통신사업망을 명확히 하였으며, 각 현 방송소에 문예프로를 제공하는 사업을 재개하게 되었다. 또한 1976년 12월에는 「조선어조」가 정치급 「조선말 방송편집부」로

18) 현재의 높이는 147미터이다.

19) 흑룡강인민방송국, 『흑룡강조선말방송 30년(1963-1993)』, 중국 흑룡강성, p.5.

20) 매주 월, 수, 금요일에 방송하였으며, 매주 화, 목, 토요일은 재방송이었다.

승격되었다.

마침내 1978년 중국공산당 제11기 제3차 전원회의가 있을 후, 10년 동안의 상처는 가시기 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79년 9월에 「조선말 방송편집부」가 정식으로 격식을 갖추고 새롭게 출범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80년대초에 들어서 개혁·개방의 추세에 부응하기 위하여 3가지 원칙과 2가지 지도방침이 제기되었다. 그 3가지 원칙이란 첫째, 지방특성을 뚜렷이 하고 보도의 지도성을 강화하는 것, 둘째, 민족특성을 뚜렷이 하고 농민들을 치부의 길로 인도하는 것, 셋째, 방송특성을 뚜렷이 하고 자기의 길을 꾸준히 개척하는 것 등이었다. 또한 2가지 지도방침은 농촌경제보도면에 있어서 첫째, 농민들의 실제적 경제이익과 밀접히 결부시키고, 둘째, 조선족 농민들의 실정과 밀접히 결부시키는 것을 뜻하였다. 따라서 “관념을 갱신하고 선전을 개혁하며 개혁을 선전하고 사회적 효과성을 높이는” 것을 지도사상으로 삼아 1980년부터 1986년 사이에 세차례에 걸친 프로개편을 단행하였다.²¹⁾ 또한 이 사이에 시간성을 고려하여 「일기예보」와 「뉴스」 프로그램을 녹음방송에서 생방송으로 전환하는 변화도 있었다.

1981년 성방송국은 주파수 873KHz의 제 2라디오 채널을 신설하였는데, 조선말 방송은 제 2라디오 채널에서 5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17시부터 19시까지 도합 4시간 방송하고, 제 1라디오 채널(621KHz)에서는 11시부터 12시까지 한 시간 방송하여 도합 하루 3차례 방송하게 되었다. 이렇듯 방송시간이 배로 늘어남에 따라 임직원수도 1978년 18명에서 1984년에 이르러 32명으로 늘어났다. 같은 해에 통신원의 수는 3천명에 달했고, 근간통신원도 2백명 가량 되었다. 이들로부터 들어오는 원고의 수도 점차 늘어났는데 1977년 2801편, 1980년 6743편, 1984년에는 1만 3천편에 달했다. 또한 편집부 기자들의 취재 원고도 점차 늘어나 1987년에는 164편, 1990년에는 447편, 1991년에는 600편으로 이미 보도방송원고의 6%를 차지하게 되었다.

이 당시 흑룡강성 조선말 방송은 인원과 조직 그리고 방송내용에 있어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고, 방송선전을 통해 지역동포들의 생활을 계몽하는데 크게 기여했을 뿐 아니라,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성내의 조선족지구에 농약, 우량종자와 농기계 등을 보급하는 등 동포경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중국의 개혁이 심화됨에 따라 1986년부터는 민족지구에서 조차 객관적인 형세의 변화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10년동안 양성한 농촌의 기층통신원들이 치부하는 데 정신이 쏠려 원고쓰는 열의가 식어갔고, 방송포맷의 다양화로 원고를 쓰는 방식도 갈피를 잡지 못하게 되었다.²²⁾

한편 농촌경제의 발전으로 텔레비전을 갖춘 농가의 수가 늘어났는 바, 1986년과 1987년에 성내 10개촌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텔레비전을 갖춘 농가수가 전체의 65%이상

21) 여기엔 방송내용에 있어서 교양성 보다 봉사성을 강조한 것과 방송형태를 변화시켜 다양한 사람들을 방송에 참여시킨 것 그리고 방송조직을 개편하여 보다 협조적인 조직 활동을 가능하게 한 것 등이 포함되어 있다.

22) 통신원들이 보내온 원고의 수는 1984년에 1만 3천편에서 1985년 12,194편, 1986년 11,099편, 1987년 5348편, 1988년에는 4,318편으로, 1984년에 비해 거의 2/3 수준으로 줄어 들었다. 그러나 1989년에 4,962편, 1990년에 6,220편, 1991년에 6,278편으로 다시 늘기 시작하였다.

이 되었다. 이리하여 텔레지전을 보는 사람의 수가 라디오방송을 청취하는 사람 수 보다 더 많아지게 되었다. 또 라디오방송 청취자라 하더라도 청취동기가 판이하게 달라져 국내의 뉴스와 민족음악을 듣는 데서 그치지 않고, 방송을 통해 스스로가 수요하는 경제 정보를 얻고 치부방도를 찾거나 편집부의 구체적인 도움을 바랐다.

또한 조선말 방송을 맡아오던 제 1세대 조직일꾼들이 사망하거나 건강 상의 문제로 은퇴하였으며, 대외적으로는 개방화 물결을 타고 북한의 「평양신문」과 한국 KBS방송공사, 미국의 「LA한국일보」 등에서 관계자들이 잇달아 편집부를 방문, 국내외관계개선문제가 현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방송국 스스로가 나서서 청취자들의 요구에 호응하고 사회적 효과성을 높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꾸려가야 한다는 생각으로 방송개편작업에 착수하였다. 예를 들어, 내부조직을 개편하고, 통신원들의 송고회수를 늘리고, 이와 동시에 뉴스 프로그램의 수와 시간을 확대하고, 뉴스프로의 재방송회수를 줄이는 등의 노력을 기울였다. 또한 방송에 대한 청취자들의 견해와 요구를 체계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편집부에서는 90년과 91년에 두 차례에 걸쳐 2천장에 달하는 「청취자 의견조사서」를 발부하였는 바, 이 중 760여장을 회수하여 프로개편에 관한 청취자들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1992년에 들어서서 편집부에서는全省 조선족들의 정치, 경제, 문화교육, 위생 등 여러방면에 대해 전반적이고도 체계적인 조사사업을 벌이고 방송을 보다 잘 꾸리기 위한 중요한 근거로 삼고,²³⁾ 그해 중순에 프로그램 개편을 단행하여 오늘날에 이르고 있다.

지난 30년간 흑룡강조선말방송의 시간대가 변화한 과정을 살펴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2> 흑룡강조선말방송 시간대 변화표²⁴⁾

시 기	주파수	변화된 방송시간대 및 기타 내용
1963. 2. 20	620KHz	7:05-7:35 (화, 목, 토), 16:30-17:00 (월, 수, 금, 일) 월, 수, 금 16:30-17:00 뉴스프로 일요일 16:30-17:00 문예프로 화, 목, 토 7:05- 7:35 재방송
1963. 8. 10	620KHz	4:30-5:00
1963. 11. 11	620KHz	5:20-5:50, 16:30-17:00 재방송중단, 매일 새로운 편성 하얼빈市는 660KHz, 21:15-21:45
1964. 11.	620KHz	4:30-5:00, 16:30-17:00 하얼빈市는 660KHz, 21:30-22:00(일요일은 22:00-22:30)
1965. 5.	620KHz	5:00-5:30, 11:30-12:00
	1120KHz	6:00-6:30
1965. 11.	620KHz	4:30-5:00, 11:30-12:00
	1120KHz	6:00-6:30
1966-68	620KHz	7:50-8:40
	1120KHz	6:00-6:50, 11:00-11:50, 20:00-20:50
1969-71. 4.	620KHz	17:00-18:00

23) 이 조사의 결과에 대해서는 자세히 알려진 바가 없다.

24) 흑룡강인민방송국, 앞의 책, pp.201-202 내용을 정리.

1971. 5.	1120KHz	11:00-12:00, 20:00-21:00
	620KHz	4:00-5:00, 17:00-18:00
1972. 5.	1120KHz	20:00-21:00
	620KHz	10:30-11:30, 17:00-18:00
1973. 5.	1120KHz	20:00-21:00
	620KHz	4:30-5:25, 17:00-17:55
1974. 5.	1120KHz	20:00-20:55
	620KHz	4:30-5:30, 17:00-18:00
1974. 11.	1120KHz	20:00-21:00
	620KHz	10:30-11:30, 17:00-18:00
1975. 11. 17.	1120KHz	20:00-21:00
	620KHz	11:00-12:00, 16:00-16:30
1979. 11. 26.	1120KHz	20:00-21:00
	621KHz	11:00-12:00
1981. 10. 19.	1116KHz	17:00-18:00, 20:00-21:00
	제1채널 (621KHz)	11:00-12:00
1984. 1. 1.	제2채널 (873KHz)	13:00-15:00, 17:00-19:00
	제1채널	11:00-12:00
1987. 1. 1.	제2채널	5:00-7:00, 17:00-19:00
	제1채널	10:30-11:30
1992. 5. 3.	제2채널	5:00-7:00, 12:00-13:00, 17:00-19:00
	제1채널	10:30-11:30(월-토)
	제2채널	6:00-8:00, 12:00-13:00(일요일에는 14:00까지), 17:00-19:00

나. 특징

하얼빈에 위치한 유일한 省級(한국의 도급) 우리말 방송인 흑룡강 조선말 방송국은 올해로 꼭 30년의 역사를 지니고 있다. 처음 하얼빈시 송화강가의 단칸방에서 다섯명에 의해 꾸려진 흑룡강성 조선말 방송은 초기부터 동포들을 위한 방송이라는 취지아래 방송의 질을 높이는 한편 민족특색, 지방특색과 각지방 방송특색이 있는 방송을 위해 노력하였는데,²⁵⁾ 먼저 민족특색면에서 국내외와 省내의 중요보도 기사를 요약해서 보도하는 한편 주로 흑룡강성과 길림, 요녕성에 사는 겨레의 모습을 보여주는 보도기사를 많이 취급하고 있다.

지방특색면에서 돋보이는 것은 각 지방 특색이 그윽한 음악프로들을 제작해내는 것이다. 흑룡강방송 창설초기에는 흑룡강성의 조선족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자체의 문예단체가 없음²⁶⁾으로 인해 취재사업이나 통신사업은 물론, 문예방송을 꾸미는 데 많은 곤란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방송 초창기부터 오랫동안 문예프로는 「연변인민방송국」에 의존하였다. 한때 흑룡강 조선말 방송이 「연변방송국의 중계방송」이란 비난까지 받을 정도였으나, 그 후 민족특색과 지방특색이 있는 방송문예프로를 제작하기 위해 많은 사업

25) 권오윤, “중국 흑룡강 조선말 방송의 어제와 오늘”, 『북방동포 방송현황과 교류협력 방안』, pp.36 - 37.

26) 현재 흑룡강성의 유일한 조선민족가무단이 1980년에 설립되었다.

을 벌여 많은 성과를 낳았다.

특히 1978년에는 하얼빈, 목단강, 해림, 계서, 밀산, 당원, 오상 등 7개 현시를 돌며 그 지역 조선족문화관과 손잡고 문예녹음제작소를 설립하고 그곳의 군중문예활동과 방송국 프로젝트를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해마다 한두차례의 문예프로평의회나 창작연구토론회 등을 열어 문예작품의 수준향상에 힘썼다. 또한 조선족지구의 군중문예활동을 진흥시키기 위하여 방송국에서 직접 편집하여 출판한 『방송노래집』을 청취자들에게 무료로 배포하기도 하였으며, 1983년부터 지금까지 노래, 소품, 재담 등에 대한 문예작품 현상공모활동을 활발히 벌여 왔다. 그 결과, 1963년부터 1991년까지 민족특색과 지방특색이 짙은 가곡 1,300곡을 녹음 편성하여 자체방송에 활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연변인민방송국과 중앙인민방송국민족부 그리고 국제방송국조선말방송에도 보내게 되었다.

또한 흑룡강성에 살고있는 45만 동포들 가운데 80%가 농촌에 살고 있기 때문에 이 방송은 동포농민을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며, 그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주는 것이 이 방송국의 임무이다.²⁷⁾ 그리하여 이 방송국은 벼은실육모, 벼 큰이랑재배, 비닐하우스육모, 기계모내기 등의 선진적인 농법도입에도 앞장 서고 있으며, 벼 다수확경쟁을 벌여 높은 소출을 낸 농가를 표창, 장려하는 등의 산업협력활동도 활발히 벌여 나가고 있다.

이밖에도 80년 1월 6일부터 85년까지 5년간 「사람찾는 라디오광고」라는 프로그램을 방송하여 그간 무려 400여명의 동포 이산가족을 찾아주는 성과를 거두기도 하였다.²⁸⁾

다. 인원 및 조직

현재 흑룡강 조선말 방송국의 조직은 권오운 주임아래 허규석씨, 원정관씨, 남병화씨 등이 있는데, 이들은 현재 지도부 4인을 구성하고 있으며 편집위원회 - 이 위원회는 보도사생에 주관점을 두고 있으며 2주일에 한차례씩 열린다 - 도 겸하고 있다. 이들 밑에 6개실 - 보도편집실, 특집프로편집실, 통련-기자실, 문예프로편집실, 아나운서실과 광고편집실 - 로 구성되어 있다.

1993년 현재 임직원 36명, 하루 방송시간은 6시간이며 중파 200Kw, 단파 50Kw로 방송하고 있다. 이는 초기에 비해 임직원은 7배, 방송시간은 6배로 늘어난 셈이다. 또한 현재 흑룡강인민방송국은 두개의 채널로 방송을 하고 있는데 매일 방송시간이 도합 26시간이다. 전성인구의 1.7%를 차지하는 조선족이 전체 방송시간의 23%를 쓰고 있는 셈이다.²⁹⁾ 하지만 흑룡강인민방송국의 한어 방송을 위해 290명의 인원이 활동하고 있는 데 비해 조선말 방송을 위해 일하는 인원은 매우 적은 셈이다.

라. 청취범위

이 방송국은全省 각지에 39개의 중파방송중계소와 3개의 단파방송 송출소, 2개의 FM방송 송출소를 가지고 있어 방송의 청취범위가 省内 뿐만 아니라, 동북3성, 나아가 한국, 일본 그리고 독립국가연합을 포함한 23개 나라에 이른다.

27) 따라서 현재 흑룡강성 조선말 방송국은 흑룡강성 민족사무위원회 산하 조선족 사무도 아울러 맡고 있다.

28) 권오운, 앞의 글, p.40.

29) 흑룡강인민방송국, 앞의 책, p.29.

마. 방송편성

1992년 6월 15일 현재, 흑룡강조선말방송의 방송편성상황을 도표를 통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표 3> 흑룡강성 조선말방송 편성표³⁰⁾

< 제 1채널(621KHz) >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10:30	開始曲					
10:31	뉴 스					
10:42	每 週 一 歌 라디오 광고					신 청 음 악
10:51	社 會 廣 場	企 業 和 市 場	라디오 배움터	약동하는 우리마을	白 衣 同 胞	
11:11	一 日 一 句		이 애기 저 애기	一 日 一 句	이 애기 저 애기	
11:21	일 기 예 보					
11:24	라디오 광고(漢語)					

< 제 2채널(873KHz) >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17:00	제 1채널의 10:30-11:30 방송을 재방송					
18:00	뉴 스					
18:10	음 악					명곡 감상
18:30	라디오 광고					
18:34	장편연재 대하드라마					
18:54	라디오 광고(漢語)					

30) 흑룡강인민방송국, 앞의 책, p.205.

* 제 1채널로 방송된 프로그램은 제 2채널로 당일 12시부터 13시 사이에 1차례 재방송되며 위의 모든 프로그램은 방송 다음날 제 2채널로 아침 6시부터 8시 사이에 재방송됨.

< 제 2채널(873KHz) >

시 간	일요일
12:00	개시곡 / 아동프로그램
12:21	문예프로그램
12:52	일기예보
12:55	광고
13:00	우리동네 가수

* 이 프로그램은 제 2채널을 통해 당일 17:00-19:00과 다음날 6:00-8:00 두 차례에 걸쳐 재방송된다.

흑룡강 조선말 방송국은 이러한 방송 시간표가 기록된 팜프렛을 미리 발간하거나 방송광고를 통해 구체적인 방송스케줄을 알리고 있는데, 이 방송국이 방송하는 프로그램들에 관해서 보다 자세히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 「뉴스」 : 조선말 방송설립초기에는 「전성중계방송」과 흑룡강방송국의 漢語 「뉴스」 프로그램을 번역해 쓰기로 되어 있었다. 당시 청취자들은 조선말로 꾸며진 뉴스를 듣는 것만으로도 만족하였으나, 점차 조선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 국내외 보도를 듣고 싶어했다.

그러던 중 1965년 성위책임자가 동녕현에서 사업시찰을 할 때, “조선말 방송은 본민족뉴스를 취급하고, 전체 뉴스프로그램의 65% 이상을 차지하여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본민족통신망을 건설하고 통신원을 물색하여 본민족뉴스를 방송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본민족뉴스가 1965년에 23%를 기록하고, ‘문화대혁명’ 기간에는 5%로 저하했다가 다시 1980년에는 40%로 늘었으며, 1982년에는 50%를 달성하였다. 그후 개혁개방의 물결로 청취자의 관심범위와 기자들의 취재범위는 넓어졌으나,³¹⁾ 기사를 쓰는 일이 처부의 수단으로 여겨져 본민족뉴스 비례가 1984년부터 조금씩 떨어져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줄곧 10% 정도에 그치고 있다.³²⁾

현재 방송되고 있는 뉴스 프로그램은 매일 2회 10분씩 보도하며, 국내외, 성내외뉴스, 우리동포지역의 뉴스를 중심으로 방송하고 있다. 또한 청취자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민족뉴스, 본방송국 기자취재보도, 현지보도, 기자들의 육성보도 등을 많이 취급하고 있다.

31) 요녕성이나 길림성, 특히 조선족의 유일한 자치주 소재지이자 보도계가 집중되어 있는 길림성 연길시에 기자를 파견하여 뉴스거리를 취재해 오게 하고 있으며, 심지어는 수도 북경과 연해주 개방지구까지 가서 취재를 하기도 한다.

32) 흑룡강인민방송국, 앞의 책, p.27.

B. 「약동하는 우리마을」: 이는 동포농민들의 구미에 맞아 그들이 즐겨 듣는 프로그램인데, 이것은 날로 변화하고 있는 흑룡강 동포촌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한편 풍토인정, 농촌의 신생사물, 인심민심과 그들의 생활상 등을 곁들여 방송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매주 1회 20분씩 방송된다.

C. 「겨레의 숨결」: 1985년 5월부터 매주 1회 20분씩 방송되어 오던 프로그램인데, 92년 6월에 단행된 프로그램 개편으로 방송이 보류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흑룡강성의 조선헌현황과 민족정책의 성과를 보도하면서 흑룡강성을 소개하는 창구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중국내 동포청취자들에게 지구촌 곳곳에 퍼져있는 동포들의 생활상을 안내해 주어 서로간의 이해와 거래를 추진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다.

D. 「소년아동」: 이 프로그램은 어린이들의 노래, 문학프로, 작문 등을 취급하는데 매주 1회 20분씩 방송되다가, 92년 6월 프로그램 개편으로 방송이 보류되었다.

E. 「사회광장」: 이 프로그램은 92년 6월 프로그램 개편시 신설된 것으로 매주 1회 20분씩 방송된다. 여기서는 중국의 현재 사회상을 보여주면서 잘된 일, 나쁜 일, 부정부패 등을 폭로하고 있다. 이밖에도 이 프로그램은 사회의 권위인사나 일반 청취자들을 모시고, 법률상식, 생활상식과 가정안팎, 인간사이의 관계 등도 다루고 있다. 따라서 청취자 스스로가 과거와 오늘을 돌이켜 보고 사회주의 중국과 자본주의 사회를 비교하며, 그 밖의 여러가지 문제들을 정신문명의 시각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F. 「라디오 배움터」: 이 프로그램은 과거 「과학지식」 프로의 발전된 형태로, 전문가, 교수들이 개발한 국내의 새기술, 새 발명품들과 농사와 기업소에 유용한 새 제작법, 새 기계 등을 소개해 주고 있다. 이밖에 기술교류와 학습기회를 제공하며,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과학지식들도 함께 소개한다.

G. 「기업과 시장」: 이 프로그램은 92년 6월에 신설된 것으로 매주 1회 20분씩 방송된다. 「농자천하지대본」이라는 전통적인 관념을 타파하고 농사를 잘 지음과 아울러 3차 산업을 발전시키고 유통분야, 노동시장과 제 3차산업에 진출, 가난으로부터 벗어나 부유한 살림을 꾸려나가도록 동포들을 이끌고 있다. 따라서 경제기술정보의 전파, 치부도경과 수단의 전수, 치부의 경험 또는 교훈의 공개 등이 주된 내용을 이룬다.

H. 「우리 마을 가수」: 민족특색과 지방특색을 살린 문예프로로서 1992년 1월부터 매주 일요일 오후 1시부터 한시간씩 진행되고 있다. 이 프로는 방송과 청취자와의 관계를 보다 밀접하게 하기 위하여 독특한 방식을 채택하였다. 즉 이 프로의 사회자가 직접 농촌에 내려가 온돌방이나 마을회관에서 그 지역 남녀노소가 모두 참여하는 모임을 조직하고 생활에 관한 여러가지 이야기와 함께 민족의 일을 느끼게 하는 우리 노래를 농민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방송에 담고 있다. 이 프로는 인기가 매우 높아 편지나 전보를 통해 자기 고장 방문에 대한 신청이 여기저기서 쇄도하고 있다.

이외에 「우리말 공부」, 「이 얘기 저얘기」, 「일요일 문예」, 「요청음악」 등의 프로그램도 있다. 또한 이 방송국에서는 중국의 실정에 맞추어 우리말과 중국어 두가지 언어로 「라디오 광고」를 하고 있으며, 국내의 광고를 모두 취급하면서, 광고상품의 대리판매도 하고 있다.

바. 방송언어

해방전 조선과 중국조선족이 사용하는 언어와 문자는 서로 다르지 않았다. 정치적 원인으로 인해 남한과 북한의 언어가 달라졌고, 중국조선족의 언어는 漢語의 영향을 받아 또다른 특색을 지니게 되었다. 특히 대량의 漢語 어휘가 지역과 음차의 형식으로 조선족 언어에 섞여 들어왔다.

따라서 방송언어에 있어서도 내부적으로나 외부적으로 많은 논란이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특히 초반에는 중국 중앙지도부와 북한의 영향으로 평양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공공연하게 확산되었는데, 10년 동안기에는 조선말과 글이 전체적으로 짓밟혔다. 동란이 끝난 후, 조선족언어의 규범화를 위한 노력이 다시 개진되었으며, 흑룡강조선말 방송 편집부는 규범화된 언어의 사용과 보급을 위해 매주 6차례씩 「우리말공부」 프로그램을 제작 방송하기도 하였다.

다음으로 방송화술면에서는 청취자와의 거리를 줄이기 위해 친절한 어조로 방송하며, 흑룡강성 거주민들 중에는 경상도를 비롯한 남도지역 출신이 전체의 60% 이상이기 때문³³⁾ 1963년 주은래 수상이 “방송언어를 평양말로 하라”는 지침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즐겨듣는 서울말씨와 그 어조로 방송하는 것 등이 특징이다.

사. 광고방송

이 방송국의 제정은 다른 여타 방송국과 마찬가지로 정부예산으로 충당되나, 이 정부 예산은 방송국 운영에는 턱없이 모자라는 액수이기 때문에 광고수입으로 일부 충당하기도 하고, 어떤 경우에는 교포 후원회를 꾸려 그 후원금으로 직원의 봉급을 조달하는 일도 있다고 한다.

광고방송의 경우, 중국의 실정에 맞추어 우리말과 중국어 두가지 언어로 「라디오 광고」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기업광고와 외국기업광고를 모두 취급하면서, 광고상품의 대리판매도 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광고방송에 대한 내용규제를 위해 허가서를 발급해주고 있다. 1분간 광고료는 100원이다.

아. 인원양성

이 방송국의 인원은 주로 대학출신으로 꾸러지고 있으며, 특히 조선어 문학부와 물리학부(기술직)를 나온 사람들이 많다. 이들은 때때로 간단한 시험을 거쳐 채용되기도 하는데, 최종적으로 앞에서 언급된 지도부 4인의 면접결과에 의해 결정된다. 이렇게 뽑힌 인원들에 대해서 「KBS 제 1라디오」나 「사회교육방송국」은 한국 방송국 연수의 기회를 제공하는 등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

33) 한편 연변 조선족들의 본적지는 38선 이북의 동북부(함경도)가 위주이고, 요녕성은 38선 이북의 서북부(평안도)가 위주이다.

자. 교류

흑룡강 조선말 방송국은 연변인민방송국과는 달리 북한방송사와는 거의 교류가 없는 반면, 「KBS 사회교육방송」으로부터는 프로그램 형식, 내용면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면서도 포괄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특히 1992년 4월 12일부터 매주 한차례씩 「KBS 사회교육방송국」에 전화를 통해 흑룡강 뉴스와 조선족 뉴스를 전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KBS 제 1라디오」와 뉴스교환, 인원양성, 취재협조 등의 교류가 있다. 또 연변인민방송국, 중앙인민방송국, 국제 방송국과도 교류가 있다.

차. 전망

중앙방송사업국에 신청한 흑룡강 라디오 제 2채널(873KHz)이 1981년에 비준을 받아, 지금까지 두개 채널로 우리말 방송을 꾸려오고 있으나, 개국 30주년을 맞는 올해에는 머지않아 명실공히 흑룡강조선말방송국으로 부상하게 되어³⁴⁾, 중국어 방송이 전혀 섞이지 않는 우리말 단독 채널(873KHz) 방송이 꾸려질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3. 中國 中央人民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가. 연혁

중국 중앙인민방송국(중국어표기: 中央人民廣播電臺)은 중국을 대표하는 국영 라디오 방송국으로서, 그 전신은 1940년 12월 30일 당시 혁명의 중심지였던 연안의 한 동굴에서 최초로 라디오 전파를 발사한 延安新華放送局이다.³⁵⁾ 당시의 방송시간은 고작 2시간에 불과하였으나, 현재는 6개의 채널을 통해 매일 107시간 방송하고 있다. 이 방송은 맑스-레닌주의와 모택동사상을 전파하고, 당과 정부의 사상노선과 정책을 알리고 설명하며, 국내외 주요 사건과 여러가지 정보, 지식, 오락 등을 다양한 서비스와 함께 국민들에게 제공하는 역할을 한다.

한편 중국은 오천 년의 역사과정 속에서 영토와 문화의 확장으로 많은 소수민족을 흡수한 다민족국가이다. 이런 중국의 다민족적 특성을 보고 주은래가 “우리의 사회주의 국가는 어느 한 민족에 의해 전속되는 국가가 아니고, 50여개 민족이 공유하는 국가이며, 또한 중화인민공화국 전체 인민이 공유하는 국가이다.”라고 지적한 바 있듯이, 중국은 소수민족을 이전의 소련처럼 탄압하고 분산시켜 그 세력을 약화시키려고 하지 않고, 오히려 소수민족을 보호, 육성하고 그들의 자치를 인정해 평화롭게 공존하고자 노력하였다.

이러한 맥락에서 중국 정부는 특히 소수민족 방송의 설립을 통해 다민족국가로서 중국을 조화로운 하나의 통일체로 발전시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중국은 특유의 생활양식을 갖춘 각 민족이 모여 사는 지방에 이들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중앙 방송국을 설립할 필요 뿐만 아니라, 전국 각 지방에 산재해 자치적으로 살고 있는 소수민족들을

34) 권오윤, “한민족 사회건설의 키스테인션”, 『방송과 시청자』 12월호, 1992. p.84

35) 中國中央人民廣播電臺, 『中央人民廣播電臺 50年: 1940-1990』, 中央人民廣播電臺, 北京, 1990. p.5.

위한 자체의 전문방송을 설치할 필요가 있었다.

초기에 중국정부는 지방의 방송국과 중앙의 방송국이 함께 그리고 동시에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하는 방송을 진행하는 것을 매우 바람직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건국 초기에는 자금과 시설이 현저히 부족한 실정이었기 때문에 지방과 중앙이 동시에 소수민족 방송을 실시하는 것은 실제 어렵게 되었고, 따라서 소수민족 방송의 임무는 자연히 중앙의 중앙방송국에서 우선적으로 전담하게 되었다.³⁶⁾

오늘날 중국 중앙인민방송국에서 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전반에 대한 정황을 도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³⁷⁾

<표 4> 중국 중앙인민방송국의 라디오 방송 정황

방송 채널	내 용
제 1 방송	주파수대 중파 단파 방송시간 21시간/일
제 2 방송	주파수대 중파 단파 방송시간 19시간/일
대만에 보내는 방송	주파수대 중파 단파 방송시간 21시간 25분/일 공통어, 아모이어, 客家語
소수민족을 위한 방송	주파수대 중파 단파 방송시간 13시간/일 몽고어, 티벳어, 위구르어, 카자흐어, 한국어 등
국의화교에게 보내는 방송	주파수대 중파 단파 방송시간 18시간 20분/일 공통어, 광둥어, 潮州語, 아모이어, 客家語
음악 회당방송	주파수대 FM 방송시간 5시간 30분/일 (일요일, 기념일은 11시간)

1950년 5월, 중국 중앙방송국은 소수민족을 대상으로 한 최초의 방송인 티벳어 방송을 개시하였다. 당시 티벳은 아직 '해방'되지 않았던 시기이므로, 티벳어 방송개시는 對 티벳 인민의 항쟁을 위한 선전의 중요한 의미를 지녔다. 이 방송은 정치상황과 청취조건 때문에 방송의 주요 청취대상이 티벳의 상류층 인사들에 국한되었다. 이 시기의 주요 방송임무는 "중앙인민정부의 민족정책을 선전, 해석하며 해방된 소수민족 거주지역에 인민해방군과 인민정부가 사찰과 문화재를 보호하고 소수민족의 풍습과 신앙을 존중한다는

36) 강현두·주봉의, 앞의 글, pp.294-295.

37) 아래 표는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의 방송』, 1986. p.327에서 발췌 정리한 것임.

실례와 영, 미 제국주의자들이 티베트를 침략하려는 음모를 밝히고 티베트인사들은 제국주의 자들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조국의 품으로 들어오라.”는 내용이였다.³⁸⁾

다음으로 중앙 방송국은 몽고어 방송을 시작하였다. 그러나 몽고의 정치상황은 티벳과 달라, 방송 프로그램 자체도 티벳과 달랐다. 1947년 5월 몽고엔 이미 중국 최초의 소수민족 자치구가 성립되었다. 당시에 몽고지방은 토지개혁 작업을 하고 있었으므로, 중앙방송국의 몽고어 방송은 몽고족의 일반대중과 간부들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중앙과 중앙인민정부의 방침과 정책 그리고 법령을 전달하고, 당의 민족정책을 선전하며, 기타 지역의 혁명과 건설의 경험을 소개하는 것 등을 주요 임무로 하였다. 그후 얼마 되지 않아 중앙방송국은 조선어와 위구르어 등 다른 소수민족 방송들도 시작했다.

또한 국가의 통일이 공고히 되고 정치와 사회가 안정됨에 따라 1957년부터는 ‘先中央, 後地方’식의 방송발전정책을 지양하고, 중앙방송과 지방방송을 동시에 발전시키는 새로운 시대가 열리게 되었다. 따라서 중국 정부는 지방 방송국의 자율적 발전을 위해 각지의 소수민족 방송 프로그램의 편성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고, 각지에 보내는 방송내용도 정책을 전달 선전하는 뉴스 프로그램 위주로 전환하였다.

<표 5> 중국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방송 프로그램 편성표

시 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05:30	뉴스						
05:45	흑룡강 통신	체육 세계	경제 생활	연변 통신	문화 생활	주간종합 시사해설	문예
06:00							
12:30	뉴스						
12:45	흑룡강 통신	체육 세계	경제 생활	연변 통신	문화 생활	주간종합 시사해설	문예
13:00							
18:00	뉴스						
18:15	흑룡강 통신	음악	음악	연변 통신	음악	주간종합 시사해설	문예
18:30							
20:00	뉴스						
20:15	흑룡강 통신	음악	음악	연변 통신	음악	주간종합 시사해설	문예
20:30							

38) 같은 글, p.295.

나. 방송편성

1992년 6월 현재, 중국 중앙인민방송국의 조선말 방송은 단파 8.566MHz, 9.190MHz, 6.566MHz, 4.100MHz로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는 앞의 표와 같다.

<표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중국 중앙인민방송국의 조선어 방송은 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주요 사건과 새로운 소식을 하루에 네차례에 걸쳐서 방송한다. 이러한 뉴스 외에도 시사해설, 스포츠, 경제생활, 문화교육, 조선족지구 소식, 여러가지 주제의 강좌, 음악프로 등 다채로운 내용으로 꾸며지고 있다.

매일 방송되는 원고는 주로 중국 신화통신사와 중국의 각 신문의 원고를 편집 번역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이밖에도 지방의 여러 보도기관과 각지의 통신원들이 보내주는 원고를 편집하여 활용하기도 한다. 또한 주요한 보도기사는 직접 기사를 파견하여 취재하기도 한다.

이 방송은 청취자의 요청과 조언을 많이 받고 있는 바, 매달 방송사로 보내오는 편지의 수가 대개 수백통 가량 된다. 그중에서도 특히 조선민족이 많이 모여 살고 있는 동북 3성(길림성, 흑룡강성, 요녕성)으로부터 편지내용이 잦은 편이며, 북한과 남한, 일본에서도 편지내용이 있다.

현재 중국의 지방에 있는 조선말 방송국들은 모두 매일 두차례씩 중앙인민방송국 조선말 방송을 공식적으로 중계하고 있으며, 보도의 내용이 상세하기 때문에 북한대사관에서는 녹음을 해서 듣고 있는 실정이다.

다. 재정 및 광고

중국의 중앙인민방송국은 국가예산과 광고수입으로 운영된다. 과거에는 시청료의 징수도 없이, 방송운영에 필요한 경비 전액이 국가에 의해서 조달되었다. 하지만 언론매체가 수적으로 엄청나게 늘어나게 되자, 각 매체에 할당되는 지원금이 줄어들게 되고 그나마도 정부가 재원마련에 어려움을 겪게 되었다.

하지만 중국 초기의 광고사업은 짙은 정치적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광고의 주목표인 이윤의 추구와는 거리가 매우 멀게 느껴졌다. 이 현상은 「문화대혁명」 시기에 더욱 심각해지며 광고는 아예 한 동안 중국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1983년에 열린 제11회 전국 방송업무회의에서는 공공기관으로부터 기금을 출연받는 안이 새로 제시되었다. 이것은 기업, 경제 단체, 정부 기관, 대학 등이 라디오 및 텔레비전의 중계국을 운영하도록 정부가 권고 형식의 지침을 하달하는 것이었다. 이러한 사회단체에서 받는 현금을 중국에서는 ‘企業支付’라고 하는데, 기업은 언론매체에 사회공익 사업을 촉진하는 입장에서 현금하지만 언론에서 광고와 같은 보상을 받지는 않는다. 매년 중국에서 제작되는 약 수천편의 텔레비전 드라마 및 많은 방송국의 각종 사회 활동자금의 일부분은 모두 기업의 현금에 의해 마련되고 있다.³⁹⁾

1979년 1월 28일 상해텔레비전방송국(上海人民電視臺)이 중국 최초의 텔레비전 광고를 방영함으로써 중국 광고업계에 중요한 계기를 만들었다. 이듬해 1월 중앙텔레비전국(中央電視臺, CCTV)에서도 「廣告와 藝術」이라는 제목의 광고 프로그램을 내보내기 시

39) 주봉의, 앞의 글, p.181.

작했다. 그리고 광고산업이 점차 발전하자, 1982년에는 국무원이 ‘광고 관리에 관한 임시 규칙’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통해 상업 광고에 관련된 모든 광고 회사, 대행사들에 대한 등록 허가제를 실시했다. 이와함께 정부는 i) 정부의 정책, 법에 저촉되는 광고, ii) 국가의 여러 민족들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광고, iii) 반동적, 외설적, 미신적 내용의 광고, iv)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의 광고, v) 국가의 안전과 군법에 반하는 광고는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러한 규제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광고산업은 그 뒤 엄청나게 발전했다. 특히 몇년 전부터 중국의 개방정책에 따라 미국을 비롯한 유럽의 광고가 속속 중국으로 밀려들어 오고 있으며, 중국 정부로서도 광고산업이 무역과 경제성장에 중요한 원동력이 된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현재 중국의 텔레비전 광고는 프로그램 광고와 스포츠 광고가 공존하고 있으나 거의 대부분이 블럭광고 식의 스포츠 광고이다. 광고방송은 한편이 30초 단위로 되어 있으며 하루 10분 이내로 억제하고 있다.

4. 中國 國際放送局의 조선말 방송

가. 연혁

중국 국제방송국(중국어로는 北京廣播電臺, 영어로는 Radio Beijing)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대외방송국으로서, 통상 “라디오 베이징 Radio Beijing”이라고 하며, 제정은 전적으로 국가에 의존한다.

중국 국제방송의 시작은 1947년 9월 11일 「陝北新華放送」이 영어로 방송을 한 데서 비롯되었다. 그리고 1949년 6월에 「北平新華廣播電臺」가 일어방송을 시작했는데 이것이 국제방송의 두번째 외국어 방송이다. 그 후 1950년 4월-7월에 월남어, 미얀마어, 타이어, 인도네시아어, 그리고 조선어 방송을 시작하면서 국제방송의 정식명칭도 현재의 이름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이 국제방송은 동남아지역에서 거주하는 화교에 대한 대외방송도 행하였는데, 廣州話, 廈門話, 潮州話, 그리고 客家話 등 한족의 4개 지방언어로 방송하고, 방송호출은 중앙인민방송국을 사용하였다. 건국 초기에 중국의 국제방송은 4개의 중국 방언과 7개의 외국어로 매일 7시간 진행되었다.⁴⁰⁾

1952년부터 1956년 간에 라디오 베이징은 세계 각국의 방송국과 적극적으로 교류하기 시작했으며 교류대상 국가와 지역은 35개에 달하였다. 하지만 50년대 초기엔 중국 방송의 기술수준이 낮았고 방송 전문인력도 매우 부족한 실정이어서 방송의 가청취지역은 주로 일본, 한국, 그리고 동남아 국가에 제한되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이 방송을 통한 선전에 대하여 일관되게 중시하는 태도를 취함으로써 라디오 베이징은 계속 성장하여 1948년에서 1957년에 이르는 동안 중국의 국제방송시간이 20배로 늘어나고 이전의 매주 16시간 방송에서 317시간 방송으로 늘어났다. 오늘날에는 38개 외국어와 중국 표준어 그리고 네가지 중국방언으로 세계 여러나라의 각 지역들에 방송하고 있다. 매일 방송시간은 중복방송시간 포함하여 137시간인데, 주방송

40) 강현두·주봉의, 앞의 글, p.298.

시간은 총 1,554시간으로, 「라디오 모스크바, "Radio Moscow"」에 이어 세계 2위를 기록하고 있다.

한편 중국 국제방송국의 한국어 방송은 1950년 7월 2일에 창설되었다. 이들은 한국어 방송이라 하지 않고 '조선어 방송'이라고 부르고 있다. 중국은 1950년 한국전쟁이 발발하자 이 국제방송을 통해 열면 선전활동을 벌였다. 특히 당시 중국의 <抗美援朝> 운동과 같이 국제방송도 영어로 대미군 심리전 프로그램을 방송하였는데, 이는 한국전쟁이 끝나는 1953년까지 계속되었다.

나. 특징

이 방송에서는 아나운서들의 어투로 북한말씨를 쓰고 있고, 북한에 가서 연수를 받는가 하면, 북한의 방송요원이 이곳에 와서 방송요원의 지도를 행하는 등 대북한방송의 역할을 주로 해 왔다. 하지만 방송언어가 북한 말씨이기 때문에, 남한에서는 라디오 베이징 조선어 방송을 북한방송으로 오해되는 경우가 많았다. 따라서 이 방송국은 앞으로 라디오 베이징 조선어 방송을 대북한방송과 대남한방송으로 나누어 두시간씩 방송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⁴¹⁾ 서울 표준말을 사용하게 되면 남한에서의 청취자의 수가 급격히 증가하게 되어, 본래 국제방송의 취지에 맞게 한국 국민들에게 중국을 알릴 기회가 그만큼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이다.

현재 "라디오 베이징"의 조선어 방송 담당자들은 연변인민방송국 아나운서들과 함께 KBS에서 순번제로 표준말 익히기 훈련을 받고 있다.

다. 방송편성

중국 국제방송국의 외국어 방송은 모두 종합적인 방송으로서 보도와 국제논평, 중국 소개, 음악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대상국의 실정에 따라 여러가지 고정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중국의 정치와 경제, 문화, 과학기술, 풍토, 인물 등을 소개하고 있다. 또한 중국 국제방송국에서는, 한국의 국제방송과 마찬가지로, 세계각지의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고 있으며 이들에게 수신확인증과 기념품과 달력 등을 보내주고 있다.⁴²⁾

중국 국제방송국에서 행하고 있는 조선말 방송시간은 맨처음 30분에서 출발하여, 오늘날에는 4시간으로 늘어났으며 프로그램도 다양하다. 이에 대하여 간략하게 살펴보면, 시간마다 보도와 논평 또는 시사해설을 보내는 외에, 요일에 따라 「체육세계」, 「중국어 강좌」, 「오늘의 중국」, 「라디오 잡지」, 「문화생활」, 「편지와 대답」, 「소설탐독」, 「명승고적」, 그리고 「음악」 등 고정 프로그램들을 편성하고 있다. 또한 명절이나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는 특집방송을 제작하기도 한다. 이런 프로그램들의 주요 목적은 청취자들이 중국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는 것이다.⁴³⁾

중국 국제방송국의 조선말 방송은 중파 1017KHz, 단파 5.97MHz로 행해지며, 1989년 5월 1일 현재, 주간 방송 프로그램 편성표는 <표 6>과 같다.

41) 김원태·최상철, 앞의 글, p.151.

42) 같은 글, p.150.

43) 김원태는 "라디오 베이징"이 특히 중국 정부의 입장과 대외정책을 가장 정확하고 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표 6> 중국 국제 방송국의 주간 방송 프로그램

조선시간	월	화	수	목	금	토	일
20:01	보도 론평 오늘의 중국 (종합) 중국어 강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左同
20:21							
20:42							
21:00	보도 론평	보도 론평	보도 론평	보도 론평	보도 론평	보도 주간 국내시사 소설탐독	보도 주간 국제시사 소설탐독
21:20	체육세계	라디오 잡지	문화 생활	편지와 대담	라디오 잡지		
21:30	명승고적	경제 소식	명승 고적		경제 소식		
21:45	음악	음악	음악	음악	음악		
22:00	보도와 논평의 20:00 - 20:20 내용을 재방송						
23:00	보도와 논평의 21:00 - 21:20 내용을 재방송						

다. 교류

중국 국제방송국의 조선어 방송은 남북한과 일본의 청취자들로부터 많은 편지를 받고 있는데, 그 대부분은 북한의 청취자들로부터 받는 것이고, 남한의 편지는 거의 드물다. 제일 많이 받는 달에는 2천여통에 달하기도 하는데, 베이징 조선어 방송에 대한 의견과 요구, 소감을 적어보내는 편지를 일주일에 두번씩 방송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다.

5. 延邊 텔레비전 放送局

가. 연혁

중국의 라디오 방송은 1922년, 텔레비전 방송은 1958년에 시작되었다. 중국 정부는 방송의 국가적인 통합의 기능을 고려하여 늘 방송에 적극적으로 투자해 왔다. 그리하여 건국 후 문화혁명이 일어날 때까지 중국의 방송은 꾸준히 성장하였다. 하지만 경비조달의 어려움과 방송의 선전효과를 동시에 고려하여 개혁·개방 이전 시기에는 주로 가격이 저렴하고 사회 보급율이 높은 유선방송을 위주로 하였다. 따라서 농촌과 산간오지까지 가구당 방송 스피커의 보급율이 매우 높았다.

「문화대혁명」 초기에는 전국이 혁명의 열광에 빠졌다. 四人幫은 자신의 권력을 굳게 지키기 위해 중앙과 지방의 방송국을 모두 장악하였다. 그리고 언론의 일치성을 확보하

기 위해서 많은 신문과 방송국을 철폐시켰다. 특히 1967에는 북경텔레비전방송국(CCTV의 전신)을 포함해 모든 방송국이 방송을 중단해야 했다.

방송에 대한 사인방 세력의 이러한 엄격한 통제는 1967의 고비를 넘어서, 1968년 이후 약간 완화되었다. 이 해부터 중국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다시 원상태로 복귀하였다. 원래 있던 방송국뿐만 아니라, 지방과 소수민족 방송국도 새로 신설하였다. 1971년까지 중국에 32개의 텔레비전 방송국이 있었으며 방송의 범위 역시 대도시 외에 많은 산간오지와 벽지에서도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1970년 말에는 중국 최초의 컬러방송이 북경에서 시작되었으며, 이듬해에는 상해, 천진, 광주 등 대도시에서도 컬러방송을 실시하였다.

한편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은 1973년에 실험방송을 시작하여, 1974년에 정식으로 창설되었다. 이 때의 방송국 이름은 “연길 텔레비전 방송국”이었다. 개국 당시에는 조선족과 중국인이 함께 방송국을 운영하다가, 1982년 이후에는 조선족이 독자적으로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

나. 인원과 조직

중국에는 우리말 방송 뿐만 아니라 모든 방송국이 국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국 직원들은 국가에서 임명한 당성이 강한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방송내용과 운영도 국가의 통제를 받는다. 그러나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경우는 약간 다르다. 그것은 물론 연변 자치주의 통제를 받고는 있지만, 자치주의 구성원이 한민족들이기 때문에 한민족이 자체적으로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을 운영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자율권이 강하다.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은 연변인민방송국과 같은 지역 내의 다른 건물에서 프로그램을 제작하고 있다. 그러나 전자는 라디오 위주의 방송이고, 후자는 TV 만을 위한 방송국이어서, 두 방송국의 종사원은 소속도 다르고 업무도 확연히 구분된다.

1985년 현재, 주 전체의 텔레비전 방송 종사자들은 1,364명인데, 주단위에 520명, 현단위에 563명, 시단위에 281명이며, 그중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에는 120명의 방송 종사자들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물론 지금은 그 수가 훨씬 늘어났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밖에도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은 매주 1회씩 『연변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텔레비전 방송국 예술단을 설립 운영하고 있다. 또한 1979년에는 ‘방송대학과정’을 설립하여, 1985년까지 주와 현에서 1,290명의 졸업생을 배출한 바 있다.

다. 방송편성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방송시간은 평일에는 저녁 6시 30분부터 밤 10시까지이며, 일요일에는 이 시간외에 오전 8시 30분부터 12시까지의 시간대가 추가되어 방송된다.

이 방송국은 처음에는 중국 중앙 텔레비전 방송을 중계하는 역할이 대부분이었으나, 1977년 말부터는 자체 프로그램을 제작 송출하고 있다. 이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을 살펴보면, 뉴스와 다큐멘터리는 물론이고, 코미디, 쇼, 어린이 프로그램 등 다양하며, 거의 모두를 우리말로 제작 방송한다.

특이한 것은 뉴스를 녹화로 제작 방송하는 것인데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은 물론, 연변인민방송국의 라디오 뉴스, 중앙 텔레비전(CCTV)의 뉴스까지도 모두 생방송이 아닌

녹화로 제작 방송하고 있다. 이것은 시사성 있는 뉴스를 중시하지 않는 사회주의 언론이 넘과도 상통하는 바가 있지만, 생방송으로 방송하는 기술상의 모험을 피하고 프로그램의 통제도 철저히 하고자 하는 언론정책의 일단을 보여주는 예라고 하겠다.

자체제작의 비율은 최근 49%에 달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 지방 텔레비전의 로컬 프로그램 비중이 평균 9%인것에 비하면 대단히 높은 비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CCTV 등 중국의 여타 방송국의 프로그램들을 우리말로 더빙해서 방송하고 있다.

매일 저녁 6시 30분부터 10분간은 연변소식시간으로 연길을 비롯한 연변자치주내의 크고 작은 뉴스가 방송된다. 6시 40분부터 7시까지는 음악감상 시간이고, 7시부터 15분간은 중국 전역의 뉴스와 해외뉴스를 다루는 국내의 소식시간이 방송된다. 이 시간의 뉴스는 중국 CCTV 뉴스를 우리말로 번역하여 방송하고 있다. 뉴스가 끝난 뒤 7시 15분부터 5-10분간은 「홀려간 오늘」이라는 과거의 뉴스를 해설과 함께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방송된다. 그밖에는 방송내용과 프로그램의 길이에 따라 방송시간이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나, 대체로 밤 10시에는 방송이 모두 끝나게 되어 있다.

연변 텔레비전 방송 프로그램의 질적 수준은 한국의 방송수준으로 볼 때, 상대적으로 낮다고 할 수 있다.⁴⁴⁾ 우선 화면의 다양성이 부족하다. 특수효과를 쓰지 않는 것은 기계 기술상의 문제라고 할 수 있겠지만, 다큐멘터리 제작은 심층적인 취재나 다양한 시각이 부족하고 평면적이며 음악과 해설을 각각 화면에 기계적으로 이어놓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카메라 워크도 다양하지 못하고, 실험을 통한 사실의 접근 같은 것은 전혀 없다. 또한 프로그램의 소재도 문화소개 프로그램, 정부홍보 프로그램이 대부분이고 간혹 드라마 프로그램도 만들기는 하지만 제작여건상 매일연속극이나 주간연속극을 상설화시키지는 못하고 있다.

개국후 지금까지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은 「우리 선생님」, 「민들레 꽃」 등 20여편의 드라마를 제작해서 소수민족 소재 드라마 평의회 경연대회 등에서 각종 상을 타기도 했지만, 그 수준은 아직 발전단계에 있다고 볼 수 밖에 없다.⁴⁵⁾ 하지만 문화 프로그램들 중 일부는 CCTV를 통해 전국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 프로그램의 한 예로 1989년 7월 현재, 프로그램 편성표를 보면 다음 페이지의 <표 7>과 같다.

라. 방송시스템

방송시스템은 우리나라와는 달리 625 PAL 방식을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525 NTSC 방식을 사용하는 한국방식과는 맞지 않으나, 한국에서 관광객들이 가지고 가는 프로그램들을 Multi-System(다기능 방식)비디오 기기로 보고 연구하고 있다. 이 방송국은 작년에 KBS가 기증한 약 3억원어치의 최신 방송기재를 받아 그들의 방송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44) 김원태, “연변 TV 방송과 국제방송”, 『방송문화』 102, 한국방송협회, 1989. 12. p.65.

45) 같은 글.

〈표 7〉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프로그램 편성표

7월 3일(월요일)	7월 4일(화요일)	7월 5일(수요일)	7월 6일(목요일)
18:45 기업가 논단: 연길시 세멘트 공장 공장장 - 이철우 19:20 아동지력유희 19:30 번역영화: 「친선의 빛발」 21:10 문예야회	18:45 시청자들의 길동무: ① 소바자의 권익 ② 집안장식 19:20 TV 연속예술 영화: 만천풍운 운(9, 10) 21:10 제1차 실내축 구준결승경기	18:45 비례식복장 제단법 (1) 19:20 소련 TV 연속예술 영화: 고난의 길(제 1 집) 21:00 백화원	18:45 문화생활: 찰대의 운치 19:25 TV 연속 예술영화: 만천풍운 (11, 12) 21:10 체육감상
7월 7일(금요일)	7월 7일(토요일)	7월 9일(일요일)	고정프로그램
18:45 동물세계: 동물의 수용기능 19:25 소련 TV 연속 예술 영화: 고난의 길 (제 2 집) 21:10 백화원	18:45 소년 아동프로 ① 옷음동이 유리우 계짜 선생을 방문 ② 김강의 금열쇄 19:35 TV 연속 예술 영화: 만천풍운 (13, 14) 21:10 문예	8:30 그림영화: 비밀한 공주(8) 9:00 일본 TV 연속 예술영화: 오신(5, 6) 18:30 동물세계(8) 19:05 아동지력유희 19:15 소품: 늘그막에 든 아들 19:25 소련 TV 연속 예술영화: 고난 의 길(제 3 집) 20:50 체육감상	18:30 연변소식 18:40 음악감상 19:00 국내외소식 19:15 흘러간 노래

마. 시청범위와 시청률

1983년에 방송 송신시설을 건립하여 연변주의 약 70%가 가시청권 안에 들어오게 되었으며, 80년대에 들어와서는 연변주내의 각 현들이 자체 방송국과 텔레비전 중계시설을 완비하게 되었다.

한편 텔레비전 수상기 보급현황에 대해서 살펴보면, 1978년말에 3백 4만대, 1980년말에 9백 20만대, 1982년말에 2천 7백 61만대, 1984년말에는 4천 6백 7만대였는데, 이것이 1988년에는 1억 4천 3백 45만대에 이르러 매우 놀라운 보급 속도를 보이고 있다. 텔레비전의 가시청 지역은 올해 현재 전국의 약 75%에 달한다. 중국은 현재 연간 1천 5백만대 내지 1천 7백만대의 칼라 텔레비전을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

또한 도시의 텔레비전 보급율은 거의 100%에 접근하고 있다. 1백 가구당 칼라 텔레비전은 34.63대, 흑백 텔레비전은 66.77대의 비율이다. 도시의 경우, 대부분 칼라 텔레비전이 95% 보급되어 있으며, 농촌은 흑백 텔레비전이 50-60%, 칼라 텔레비전이 20% 가

량 보급되어 있다는 견해도 있다.

농촌에서는 아직 집단으로 텔레비전을 시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실제 텔레비전 시청률은 텔레비전 보급률보다 훨씬 높다. 흑백 텔레비전 수상기는 4-5개월 정도의 월급을 모아야 살 수 있고, 칼라 텔레비전은 1년치 월급을 다 모아야 살 수 있을 만큼, 그들의 생활수준에 비해 비싼 편이다. 그래서 중요한 방송이 있을 때는 칼라 텔레비전이 있는 집에 모여 집단 시청을 하기도 한다.⁴⁶⁾

1983년부터 신문을 대신하여 텔레비전이 중국 인민들이 가장 많이 접촉하는 언론매체로서 등장하기 시작하였다. 또한 오늘날 중국인의 평균 텔레비전 시청시간은 하루 2시간 반 정도이며, 매일 전 인구의 55%인 약 6억명이 습관적으로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중 도시 거주민이 시청자의 63%를, 농촌 주민이 약 37%를 차지한다.⁴⁷⁾ 따라서 연변주 전체인구가 188만명이고, 한민족은 그중 41%인 76만명, 그리고 자치주의 수도인 연길시의 인구는 18만명, 한민족은 그중 57%인 10만명 정도라고 할 때, 중국의 전체적인 시청율을 그대로 적용하면, 현재 연변 텔레비전 조선말 방송의 동포 시청자 수는 대략 도시민 6만 3천명과 농촌 주민 2만 3천 여명을 합해 약 8만 6천명을 초과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다.

바. 재정 및 광고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은 국영이기 때문에 시청료도 받지 않고, 주 재정국 예산으로 방송국을 운영하고는 있지만, 운영자금의 많이 부족한 형편이기 때문에 광고를 많이 한다. 이를 통해 광고비로 들어오는 수익은 자체 내에서 전용할 수가 있다.

인기 프로그램의 경우, 어떤 때는 무려 22개의 광고가 나간 적도 있다. 광고의 내용은 대개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전 등 전자제품과 의상, 카메라, 한약 등 이른바 문화 생활품에 관한 것들이다. 이 중에서 의약품 광고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다.

중국에서 광고 프로그램은 전문적인 광고업체에서 제작되지 않고, 방송국 자체에서 생산한다. 이 방송국의 경우도 마찬가지로인데, 5명으로 구성된 방송국 자체 내 광고부에서 광고 프로그램을 직접 촬영하며, 제작부에서 제작을 맡고 있다.⁴⁸⁾

III. 結 論

지금까지 중국 방송의 체제 및 중국에 존재하는 각각의 우리말 방송의 현황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현재 중국에 거주하는 우리 동포들은 비교적 우리의 말과 음식, 주거형태, 예절 및 풍습 등을 잘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된다. 이제 교포 1세대는 많이 사라져가고, 교포 2세대와 3세대들이 활발한 활동을 보이고 있는 중국의 우리 동포들은 근면함

46) 중국은 방송초기부터 확정기라든지 廣播大會 등을 통한 집단적인 마스크 칭취 행위가 존재해 왔다.

47) 주봉의, 앞의 글, p.262.

48) 방송위원회,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여성기술인 허송자", 『방송'91』, 91.7., p.80.

과 높은 교육열을 바탕으로 우리 문화를 보존하고자 하는 의욕이 드높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말 방송은 우리 문화의 맥을 이어가는 데 커다란 자국이 되고 있으며, 최근의 고국 문화의 전파하고, 그 지역동포들의 생활에도 직접적인 도움을 주고 있다.

하지만 현재 중국의 우리말 방송이 처한 가장 시급한 문제는 방송장비개선을 비롯한 사무자동화 등에 필요한 자금재정난이다. 비록 중국에서 텔레비전이나 라디오방송을 비롯한 언론계는 정부운영으로 국가의 자금을 쓰고 있지만, 그 사업비가 제한되어 있어서 발등의 불을 끌 형편밖에 되지 않는 보잘 것 없는 것이다.

흑룡강조선말 방송국의 경우에도, 방송시설의 대부분이 60년대에 제작된 중국 국산제품들이고, 일부 국외에서 수입한 방송시설들도 사용연한이 지나 프로그램 녹음편성을 겨우 해나가는 형편이며, 기자취재용으로 쓰이고 있는 일본 소니(SONY)회사의 휴대용녹음기도 몇 대뿐인 형편이어서 사무자동화는 말조차 꺼내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그래서 이 방송국은 이러한 어려움에 대해 매우 난감해 하면서 한겨레를 위한 차원에서 다음과 같은 구체적인 해결책을 제시하고 있다.⁴⁹⁾

첫째, 한국 기업체로부터 매년 10만불이상의 광고료 수입.

둘째, 이 방송국의 증개로 흑룡강성에 백만불 이상의 투자규모를 가진 합자기업을 한 두개 설립하는 것.

셋째, 한국의 해당부문이나 그룹에서 일차성적인 장비, 자금지원 등등.

이들 중 첫째와 둘째의 문제는 각 해당지역의 경제적 여건과 긴밀한 연관을 갖고 있으며 특히 그 지역에 진출할 한국기업들의 몫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여기서는 논의할 수 밖에 없다. 하지만 연변이나 흑룡강성지구는 천연자원이 풍부하고 교포노동력이 풍부한 것으로 보이는 것만은 사실이다. 만약 그런 지역에 진출할 때 반드시 고려해야 할 점은 이들 교포방송국들이 단순한 방송사업 뿐만 아니라 형식적으로 각 민족들의 사무를 관장하는 '민족사무위원회'를 대신해 실질적인 조선족 사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고 있다는 점이다. 또한 이들 방송국의 간부들은 모두 당원이기도 한 탓에 방송의 영향력 이외에도 여러모로 그 지역에서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다는 사실도 함께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장비조달문제에 있어서는 아무리 신형의 방송기자재를 국내에서 지원해준다고 해도 중국의 교포방송 인력이 그것을 제대로 다루기 힘들다는 점, 따라서 6,70년대에 사용했던 그래서 별로 쓸모가 없어진 그런 장비들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아무리 무상으로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중국 정부에서 부과하는 관세가 엄청나게 무겁기 때문에 정부간 협상으로 이 관세율을 낮추는 방안도 고려해야 될 것이다.

아울러 국내 방송사와 뉴스를 포함한 프로그램 교환이 보다 활발히 일어나야 하며 방송인력의 교육이나 프로그램 편성기술 등의 전수 그리고 상호간 취재협조관계의 발전 등이 요구된다. 특히 현재 중국의 교포방송들은 한국에 대한 소식을 주로 신화통신사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직접적이고 신속한 뉴스전달을 위해 국내방송사와의 뉴스증개를 절실히 원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로서는 「KBS 사회교육방송국」을 통해 2주일마다 한번씩 뉴스를 교환하는 게 고작이다. 따라서 중국과의 상업적 거래나 문화, 체육, 정

49) 권오윤, "중국 흑룡강 조선말 방송의 어제와 오늘", pp.44-46.

치적 사건 등과 관련된 보다 다양한 뉴스들이 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마지막으로 우리의 문화를 전수할 수 있고 서로의 공감대를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개발해 서로 교환할 수 있어야 하겠다. 중국의 교포들은 한국의 발전상과 자유로운 문화적 분위기에 많은 호감을 갖고 있으며 이는 현재 중국 교포 방송 프로그램에서도 그대로 반영되어 나타나고 있다. 즉 다시 말해서 연변이나 흑룡강성에서 인기있는 음악프로그램이나 교양프로그램들은 대개 한국방송의 포맷과 내용을 본뜬 것들이 많다. 물론 그곳의 문화도 북한 보다는 우리에게 더 가깝다. 이 모든 것은 그간 꾸준히 노력해온 여러가지 문화적 행사들의 결과이자 외교적 성과이다. 따라서 다양한 문화프로그램들을 만들어 그들과 교환함으로써 보다 상호간의 공감대를 확장시키고, 한걸음 더 나아가 그들과 함께 통일의 기초가 될 문화적 풍토를 건설하는 일이 장기적으로 필요한 일이다.

참 고 문 헌

- 강현두·주봉의, “중국방송사”, 한국방송학회 편, 『세계방송의 역사』, 나남, 1992.
- 권오윤, “중국 흑룡강 조선말 방송의 어제와 오늘”, 『북방동포 방송현황과 교류협력방안』, 북방동포대상 방송2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KBS, 1992년 10월 7일.
- 권오윤, “한민족 사회건설의 키스레이션”, 『방송과 시청자』 12월호, 1992.
- 김원태, “연변인민방송국”, 『방송문화』 11, 1989.
- 김원태, “연변인민방송의 개요”, 『방송문화』 11, 한국방송협회, 1989.
- 김원태, “연변 TV 방송과 국제방송”, 『방송문화』 102, 한국방송협회, 1989. 12.
- 김원태·최상철, “중국 조선족 동포의 우리말 신문방송에 관한 연구”, 『한국언론학보』 제 28호, 1992년 가을, 한국언론학회.
- 외무부, “91 해외동포 지역별 분포현황”, 1991.
- 윤광수, “연변인민방송국의 연혁과 방송정황”, 『북방동포 방송현황과 교류협력방안』, 북방동포대상 방송20주년 기념세미나 자료집, KBS, 1992년 10월 7일.
- 주봉의, 『개혁개방에 따른 중국언론의 변화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문학박사학위논문, 1994년 2월 출간예정.
- 中國中央人民廣播電臺, 『中央人民廣播電臺 50年: 1940-1990』, 北京, 1990.
- 한국방송위원회, “서울에 온 연변인민방송국 보도국의 20대 청년기자 문영범”, 『방송'90』 6월호, p.97.
- 한국방송위원회, “연변 텔레비전 방송국의 여성기술인 허송자”, 『방송'91』, 91.7.
- 한국언론연구원, 『세계의 방송』, 언론연구원 총서1, 1986.
- 한상복·권태환, 『중국연변의 조선족 - 사회의 구조와 변화』, 유네스코 한국위원회, 1992.
- 흑룡강인민방송국, 『흑룡강조선말방송 30년 (1963-1993)』, 중국흑룡강성, 1993.